

楊 普 景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木版本 朝鮮全圖
《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梁 允 禎

木版本 朝鮮全圖
《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楊 普 景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梁 允 禎

인 준 서

梁允禎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국 문 초 록

地圖란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理的 空間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므로 지도의 모습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地圖에는 당시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런 의미에서 古地圖 역시 옛사람들의 공간적 지식과 생활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地圖는 정치적 목적과 학문의 발달로 크게 발전했고 인쇄술의 발전은 또한 다량 생산이 가능한 木版本 地圖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제한적이었던 地圖의 사용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木版本 地圖의 발전은 ‘東覽圖’와 같은 地圖冊에서 시작해 木版本 地圖의 결정체인 金正浩의 《大東輿地圖》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도의 보급을 가능하게 한 木版本 地圖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후기 지도의 흐름 속에서 木版本 地圖의 중요성과 대중성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고, 이를 위해 《大東輿地圖》보다 먼저 제작된 木版本 《海左全圖》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지도 전체 길이가 1m 정도인 木版本 《海左全圖》는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는 정상기의 《東國地圖》 계열의 지도와 유사하며, 여러 종의 지도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지도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도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山·川·島 등의 자연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서울과 군현에 관한 행정 정보, 군사 정보, 驛을 표시한 교통 정보, 사찰 등의 문화 정보인 인문적인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海左全圖》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도 여백에 있는 註記이다. 주기에는 檀君朝鮮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의 변천과 鬱陵島·對馬島·濟州道 등의 역사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산과 관동팔경 등의 명승지가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海左全圖》의 판본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 규장각, 성신여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경희대 혜정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17장의 지도를 사용했다. 이 17장의 《海左全圖》 중 2장의 筆寫本 地圖를 제외한 15장의 《海左全圖》판본을 비교해 본 결과, 木版本 《海左全圖》의 경우 지도의 크기나 형태, 내용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3종류의 판본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분류는 판이 나뉜 위치, 註記에서의 誤字와 글자의 모양, 그리고 지도상에서의 하천과 산, 도 경계선 표현·정보의 추가·섬의 추가 및 삭제·誤字 등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세 종류의 판 유형을 각각 (가), (나), (다)로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유형과 (나) 유형의 경우 지도 전체가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도상에서 판이 나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가) 유형의 주기 부분에서 ‘大清’을 ‘大池’로 잘못 판각한 것, 평안도 薪島鎭의 진보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것, 淸涼山이 淸京山으로 잘못 표시한 것을 (나) 유형에서는 바로 잡고 있다. 또한 (나) 유형에서는 (가) 유형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섬이 표시되어 있고, (나) 유형의 경우 같은 유형의 지도에서도 섬이 추가된다. 이는 부분적인 수정이 용이한 木版本 地圖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 유형은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5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 유형의 세 번째 판이 (다) 유형에서는 경기도 남양에서 다시 한 번 나뉘지고 있다. 그리고 (다) 유형의 경우 지도상에 나타난 표현이나 특징이

(나) 유형과 유사하지만, 對馬島까지의 거리 표현은 (가) 유형과 유사하다. 즉, (가) 유형과 (나) 유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가) 유형의 지도가 가장 먼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木版本 地圖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기 1m 정도의 목판본 지도가 여러 본 제작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海左全圖》의 경우, 많은 지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이 주기에 나타난 지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海左全圖》는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는 크기의 지도이며, 다량 제작이 가능하고, 또한 많은 정보가 수록된 지도로 아마 조선시대 당시 대중적인 지도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이를 모사한 筆寫本 《海左全圖》가 제작된 것으로 보아, 목판본 《海左全圖》는 地圖의 대중성과 地圖의 용이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지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4
3. 선행 연구	5
II. 조선시대의 朝鮮地圖	8
1. 조선전기의 地圖	8
1) 李薈의 《八道地圖》	8
2)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	9
2. 조선후기의 地圖	11
1) 鄭尙驥의 《東國地圖》	11
2) 金正浩의 《靑邱圖》와 《大東輿地圖》	12
III. 목판본 지도의 제작과 발달	14
1. 목판본 지도 제작의 배경	14
1) 국가차원에서 지도 중시	14
2) 목판 인쇄의 용이성	16
2. 木版本 地圖의 發達	18
1) 소형 木版本 地圖冊	18
2) 最古의 목판본 地圖冊 《東國地圖》	22
3) 鄭尙驥 《東國地圖》 유형의 《海左全圖》	23
4) 목판본 지도의 결정체인 《大東輿地圖》	25
IV. 木版本 《海左全圖》의 제작방법 및 제작시기	26
1. 《海左全圖》의 형태	26

2. 《海左全圖》의 제작방법	30
3. 《海左全圖》의 제작시기	31
V. 《海左全圖》의 내용 분석	36
1. 《海左全圖》에 표현된 자연 정보	36
2. 《海左全圖》에 표현된 인문 정보	39
VI. 《海左全圖》의 유형 분석	42
1. 판 유형에 따른 《海左全圖》의 분류	42
2. 판 유형별 비교 분석	50
1) 註記 부분	50
2) 지도상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	52
3) 지도상의 誤字	62
3. 각 유형별 특징	66
1) (가) 유형의 지도	66
2) (나) 유형의 지도	69
2) (다) 유형의 지도	72
4) 필사본 《海左全圖》	73
V. 결론	79

참고문헌

ABSTRACT

그림 목 차

[그림 1] ‘覽圖’ 수록된 <八道總圖>(古4709-107)	19
[그림 2] <東國八道大總圖> (가람고912.6-j561)	21
[그림 3] <東國大總> (古4709-58)	21
[그림 4] <<海左全圖>>(古軸 912.51-H118)	24
[그림 5] <<海左全圖>>(古軸 912.51-H118)의 크기	26
[그림 6] <<海左全圖>>의 북부지방	27
[그림 7] <<東國地圖>>형 地圖와 <<海左全圖>>의 윤곽 비교	28
[그림 8] <<海左全圖>>의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부분	29
[그림 9] 목판본 지도의 題名	34
[그림 10] 필사본 지도의 題名	34
[그림 11] 목판본 <<海左全圖>>(左)와 필사본 <<海左全圖>>(右)의 북부지방	35
[그림 12] 필사본 <<海左全圖>>의 윤곽 비교	35
[그림 13] <<海左全圖(8)>>(上)과 <<海左全圖(5)>>(下) 평안도의 渭原 부분	44
[그림 14] <<海左全圖(8)>>의 판 나뉨	45
[그림 15] <<海左全圖(8)>>의 판 나뉨	45
[그림 16] (가) 유형과 (나) 유형의 첫 번째 판 나뉨의 비교	46
[그림 17] (나) 유형과 (다) 유형의 마지막 판 나뉨 부분	47
[그림 18] (나) 유형과 (다) 유형의 경기도 부분	48
[그림 19] 白頭山定界碑 註記 중 ‘大清’ 부분	51
[그림 20] 白頭山 註記 중 ‘穴’과 ‘可’의 오기 부분	52
[그림 21] (가) 유형 - <<海左全圖(4)>>의 백두산 부분	53
[그림 22] (나) 유형 - <<海左全圖(5)>>의 백두산 부분	53
[그림 23] (가) 유형과 (다) 유형의 평안도 楚山 부분	54
[그림 24] (가) 유형과 (나) 유형의 河山峯 부분 비교	55
[그림 25] 함경도 洋島의 모양 비교	57
[그림 26] 각 유형별 함경도 부분의 섬 모양 비교	57

[그림 27] (가) 유형과 (나) 유형의 평안도 義州 부분	58
[그림 28] (가) 유형과 (나) 유형의 평안도 부분 섬 비교	59
[그림 29] (가) 유형과 (나) 유형의 충청도 부분 섬 비교	60
[그림 30] (가) 유형과 (다) 유형의 전라도 부분 섬 비교	60
[그림 31] 평안도 薪島의 진보 표시 有無 비교	61
[그림 32] 각 유형별 對馬島의 하천 형태 비교	62
[그림 33] (가) 유형 지도의 淸涼山 誤字와 (나) 유형의 正字	63
[그림 34] (가) 유형과 (다) 유형에 보이는 對馬島까지의 水路	64
[그림 35] (나) 유형 지도에서의 對馬島까지의 水路	64
[그림 36] (가) 유형의 함경도 부분	67
[그림 37] (가) 유형의 판이 구분되는 부분	68
[그림 38] 《海左全圖(9)》와 《海左全圖(4)》의 함경도 부분 섬 비교	70
[그림 39] 《海左全圖(10)》 함경도 부분에 추가된 섬	70
[그림 40] 지도위에 침지가 덧붙여져 있는 《海左全圖(3)》	71
[그림 41] (나) 유형과 (다) 유형의 현 위화도 부근	72
[그림 42] 筆寫本 《海左全圖》의 題名 부분	73
[그림 43] 木版本 《海左全圖》와 筆寫本 《海左全圖》의 북부지방	74
[그림 44] 木版本 《海左全圖》와 筆寫本 《海左全圖》의 백두산 부분	75
[그림 45] 筆寫本 《海左全圖(16)》에 나타난 長津과 厚昌	76
[그림 46] 筆寫本 《海左全圖(16)》에 나타난 ‘距京里數’의 표현 방법	77
[그림 47] 木版本 《海左全圖(3)》과 필사본 《海左全圖(16)》의 전라도 부분	77
[그림 48] 筆寫本《海左全圖(16)》의 註記	78

표 목 차

[표 1] 《海左全圖》의 製作時期 推定을 위한 資料	33
[표 2] 《海左全圖》의 道里 표현 방법	40
[표 3] 연구에 사용한 《海左全圖》	43
[표 4] 판 유형에 따른 《海左全圖》 유형과 판 나뉨	49
[표 5] 각 유형별 차이점 비교	65
[표 6] (가) 유형 《海左全圖》의 판 크기	66
[표 7] (나) 유형 《海左全圖》의 판 크기	69
[표 8] (다) 유형 《海左全圖》의 판 크기	72

I. 서 론

1. 연구 목적

운전을 하는 이에게 도로지도는 필수품이고, 학생인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나라 방방곡곡과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모습을 담고 있는 지리부도가 필수품이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군사지도를, 기상청에서는 일기예보에 필요한 지도, 관광객은 관광 지도를, 행정가에게는 그들 계획에 밑받침이 되는 그 지역의 행정지도나 도시계획지도 등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지질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도는 우리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나 지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지도를 사용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기상도가 없는 일기예보,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도로지도 없이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 토지이용도나 행정지도 없이 계획되는 도시계획은 상상만으로도 답답한 일이다. 이처럼 지도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에는 그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地圖는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理的 空間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된다. 地理的 空間은 산맥, 하천과 같은 自然的 要素는 물론이고 도로, 행정구역 등의 人文的 要素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적 공간에 대한 정보위에 그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古地圖 역시 옛사람들의 공간적 지식과 생활이 반

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들의 삶을 담고 있는 지도가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동굴이나 바위, 또는 조개 따위에 그린 그들의 모습이나 약속을 그림이 아닌 지도라고 볼 때 지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강역지도인 <封域圖>와 백제에 圖籍이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이미 삼국시대부터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53년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굴된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遼東城圖>의 내용으로 고구려 시대의 지도 제작기술을 엿볼 수 있으며, 이 지도는 회화적으로 표현된 일종의 도시지도로 볼 수 있다.¹⁾ 그러나 여러 기록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지도와 고려시대의 지도는 현존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전해지는 古地圖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도 제작은 정치적 목적과 학문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했다. 조선전기에는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같은 世界地圖가 새로운 왕조의 주관 하에 제작되었다. 또한 한양 천도와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효율적 통치 및 군사적 필요에 의해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천문기구인 大簡儀가 설치되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記里鼓車와 각종 해시계 등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世宗대의 업적을 바탕으로 실측 지도인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가 제작되었다. 조선후기 우리나라 지도 수준 및 과학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지도에 百里尺을 사용해 거리 측정이 가능했다. 그리고 古山子 金正浩에 이르러 제작된 지도들은 현재의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정확한 지도의 발달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의 결과이다. 지도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누

1)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pp.316~317.

가, 왜 지도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지도의 내용과 제작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오늘날 많은 지도들이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古地圖 역시 지도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다.

인쇄술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는 손쉽게 구해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조선시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목판본 지도를 제작한 것 또한 지도 사용자의 제한성을 탈피하는 발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목판인쇄본 지도라는 특성에서 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의 지도 보급을 꼽는다. 이는 정치 지도자나 양반이 아닌 이들도 지도를 필요로 했고, 지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에는 그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정치나 군사 목적 이외의 상업 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지도 사용 목적까지도 지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판본 지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목판본 고지도 연구의 대부분은 목판본 지도의 완성이자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大東輿地圖》에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목판본 지도 중에서 《海左全圖》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목판으로 제작된 조선전도인 《海左全圖》를 분석하여, 목판본 지도의 제작 배경 및 지도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海左全圖》의 제작 의의와 중요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목판본 지도이므로 지도를 통해 판본의 형태를 살펴보고, 현재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는 다수의 《海左全圖》 판본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 검토한 판본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海左全圖》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간의 상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당시 제한적이던 지도 제작과 지도 이용자와는 달리 지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목판본 지도의 제작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海左全圖》는 지도의 유형으로 볼 때 朝鮮全圖이므로 朝鮮全圖의 발달 과정을 검토하여,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海左全圖》가 목판본 지도인 만큼, 목판본 지도가 제작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및 목판본 지도의 발달에 대해 참고문헌과 地理志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海左全圖》의 경우 목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현재 다수가 전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주요 공공 도서관과 박물관 소장본으로 제한하였다. 즉,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3장, 성신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4장²⁾, 영남대 박물관 소장의 2장,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의 2장,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3장,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2장³⁾,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의 1장으로 총 17장을 연구 자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海左全圖》가 목판본 지도인 만큼 공공 박물관이나 도서관 소장 이외에 개인적으로 소장된 지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海左全圖》의 판본 비교를 위해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海左全圖》(古軸 912.41-H118)⁴⁾를 저본으로 《海左全圖》의 전체적 형태와 기본적인 지도의 내용 및 지도 간에 상이하게 표현된 부분을 파악하였다. 판본에

2) 성신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海左全圖》 4장이 모두 木版本 地圖인 것은 아니다. 이 중 3장은 木版本 지도이지만, 나머지 한장은 筆寫本 地圖이다. 필사본 지도이기는 하지만 《海左全圖》라는 똑같은 지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에 포함했다.

3)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2장의 《海左全圖》 중 한 장은 筆寫本 地圖이다. 그러나 성신여대의 筆寫本 地圖와 마찬가지로 《海左全圖》라는 제명으로 되어 있으며, 木版本 《海左全圖》의 주기 부분까지 모사하고 있어 연구 자료에 포함했다.

4) 논문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동안 여러 차례 《海左全圖》 및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朝鮮全圖 자료 열람을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奎章閣 책임연구원 이기봉 선생님과 성신여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경희대 혜정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관한 연구 및 각 지도의 특징은 17장의 《海左全圖》 원본을 직접 보고 지도의 크기·전체 모습·내용·판본 상태·글씨체·판각의 정교함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원본을 검토하면서 직접 촬영한 각 지도의 부분적 사진을 비교·분석하여 서로 다른 판본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같은 판본에서의 각각의 미세한 차이점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리했다.

지도에 표현된 내용 및 주기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지역상을 담고 있는 『大東地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地理志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地名의 變遷과 당시 사회적 배경 및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을 주로 이용하였다.

3. 선행연구

한국의 지리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실용적인 학문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 지리학은 일제식민지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지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60년대 李燦의 연구를 기반으로 1970년대에는 보다 많은 한국 학자들이 고지도 연구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더불어 학제간 연구들이 행해졌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개별 지도 연구를 통해 지도의 형태와 내용상의 특징, 그리고 지도학적 계보 등을 연구하였다. 이는 곧 개별 지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더불어 고지도에 관한 연구는 1968년 李濬의 “韓國地理學史”⁶⁾를 통해 정리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歷史學的 觀點에서 바라보던 古

5) 오상학, 2001, “朝鮮時代의 世界地圖와 世界 認識”,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p.25.

6) 이찬, 1968,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p.681~734.

地圖를 地圖와 地理學的 시각으로 정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91년에는 “韓國의 古地圖”⁷⁾라는 제목의 論文을 통해 한국 고지도의 발달사를 체계화했다. 이 논문에는 조선시대 지도에 영향을 미친, 그 이전 시대의 지도 및 한국인의 지리적 지식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초 李薈 의 《八道地圖》를 시작으로 16세기 《東國輿地勝覽》의 <東覽圖>, 17·18세기 鄭尙驥의 《東國地圖》, 그리고 金正浩의 地圖까지의 발달과정을 정리했다. 또한 시기별 지도의 발달과 더불어 世界地圖·朝鮮全圖와 分圖·郡縣圖·都城圖·關防圖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地圖冊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했다.⁸⁾

한국 고지도의 발달사가 체계화됨과 동시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地圖뿐만 아니라 邑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읍지에 포함된 지도들도 연구되었다.⁹⁾ 그리고 官撰地圖나 備邊司地圖와 같이 특정 기관에서 제작된 지도, 또는 서울과 같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古地圖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¹⁰⁾ 또한 최한기, 정약용, 정상기 등 지리학자를 중심으로 地圖 및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연구 등이 이루어지면서,¹¹⁾ 古地圖에 대한 연구는 더욱 세분화되어

7) 이찬, 1991, 앞의 논문.

8) 이찬, 1991, 위의 논문, pp.315~375.

배우성, 1996, “18世紀 官撰地圖 製作과 地理 認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10) 양보경, 1992, “18世紀 備邊司地圖의 고찰 - 奎章閣 소장 道別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奎章閣 15, pp.93~123.

이찬·양보경 著, 1995, “朝鮮時代 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연구소, pp.122~136.

양보경, 1995, “郡縣地圖의 發達과 《海東地圖》”, 海東地圖(解說, 索引集).

양보경, 1997, “당진 古地圖의 역사적 이해”,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pp.105~112.

양보경, 1998, “韓國의 옛 地圖”, 한국의 옛지도(자료편), 영남대학교 박물관.

양보경, 2002, “전통 지리학 : 발달과 전망”,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pp.17~57.

11) 양보경, 1992, “申景濬의 『山水考』와 『山經表』 -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5-6 월호, pp.135~145.

양보경, 1997, “崔漢綺의 地理思想”, 진단학회 진단학보 제2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古地圖의 종류·지도의 연대 추정·지도의 계보, 그리고 성격 등이 완전히 파악되지 못했다.

《海左全圖》의 경우에도 鬱陵島 바로 옆에 ‘于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현재 각종 독도 관련 홈페이지의 첫 장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古地圖’를 검색할 경우 누구나 쉽게 접하는 地圖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海左全圖》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지도상의 백두산 註記 부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종의 판본이 있음이 알려져 있을 뿐,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목판본 지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木版本 地圖의 경우,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와 그 외의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지도를 제외하고 《海左全圖》와 같은 木版本 地圖에 관한 개별적 연구 또한 거의 없다. 독립된 논문으로 거의 유일한 것은 楊普景의 “木版本 《東國地圖》의 편찬 시기와 의의”¹²⁾이다.

12) 양보경, 1991, “木版本 《東國地圖》의 편찬 시기와 의의”, 奎章閣 14, pp.1~28.

II. 조선시대의 朝鮮全圖

우리나라에서 제작 한 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독 지도는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로서, 이는 일본 및 아라비아 반도·아프리카·유럽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지도이다. 세계지도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린 지도들은 태종대인 1402년에 만들어졌으며, 세종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¹³⁾

1. 조선전기의 地圖

1) 李薺의 《八道地圖》

이희의 《八道地圖》는 현재 단독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으며, 그의 《八道地圖》를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세계지도인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우리나라 부분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건국 초 정치상·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서둘러 만들어진 全國郡縣圖로 조선의 개편된 행정구역을 반영하고 있기 보다는 고려시대의 《五道兩界圖》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이희의 《八道地圖》의 특징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의 동서로 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당시 북쪽 국경지역이 부정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3) 양보경, 1991, 위의 논문, p.2.

14)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p.6.

이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선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도는 개별적인 山 보다는 山脈을 위주로 표현되어 있으며, 북쪽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河川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¹⁵⁾

2)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지도라 할 수 있는 정척과 양성지의 《東國地圖》는 전국지리지의 편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조선 전기 건국과 더불어, 이전의 고려적 인식에서 조선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와 모든 문물이 정비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전국지리지의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世宗 18년(1436) 정척이 함경도·평안도·황해도 지방을 다시 조사하여 북부지방에 대해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四郡과 六鎭, 그리고 압록강의 상류와 두만강의 하류의 모습이 지도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었고, 文宗 원년에 郡縣圖로 추정되는 《兩界地圖》가 제작되었다. 또한 북부 지방의 지도 제작과 함께 충청·경상·전라의 下三道 지도제작에 주력한 이는 양성지이다.¹⁶⁾

정척은 지도 제작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의 정확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는 지도에 있어 거리와 방위의 중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며, 또한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인 驛路를 군사 동원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즉, 각 도 驛路의 遠近과 잇수가 당시 지도 제작 목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측량은 새로 만든 步數尺을

15) 이찬, 1991, 앞의 논문, pp.331~332.

16) 이찬, 1991, 위의 논문, p.334.

방동인, 2001, 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p.72.

이용했고, 매 30리마다 나무나 土石을 이용하여 표시하게 했다.¹⁷⁾ 또한 방위에서도 4방위 사용에서 12방위법을 이용해 지도의 정확성을 기했다. 그리고 世宗 때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위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용 기계들이 발명되어 지도 제작의 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世祖가 지도에 가졌던 많은 관심과 지도 제작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은 조선 후기 지도 제작의 저본이 되는 정책과 양성지의 《東國地圖》를 제작하게 했다.¹⁸⁾

현재 정책과 양성지의 《東國地圖》는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그 사본 또는 비슷한 유형의 속하는 지도들이 일본 내각문고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전하고 있다. 이런 東國地圖형에 속하는 지도와 權近의 跋文이 있는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나타난 이회의 八道地圖형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정책과 양성지의 東國地圖형 지도에 표현된 鴨綠江과 豆滿江의 流路和 上流 지방의 모습이 이회의 八道地圖형 모습보다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河系網도 압록강과 두만강 이외에 청천강·대동강의 유로 역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산지의 표현 역시 山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표현보다는 山脈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회의 《八道地圖》에는 없었던 교통로와 각 지역까지의 일정과 里數가 표현되어 있으며, 행정과 군사지에 대한 구별을 색을 통해 표시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도별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州·郡·縣을 표시하는 등 지도에 인문적인 내용이 풍부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¹⁹⁾

17) 文宗實錄 卷 4, 文宗即位年 10月 戊寅, 12月 戊戌.

18) 방동인, 2001, 앞의 책, pp.72~90.

19) 이찬, 1991, 앞의 논문, pp.334~335.

2. 조선후기의 地圖

1) 鄭尙驥의 《東國地圖》

조선 전기에 지도 제작은 주로 국가에서 주도하였고, 민간에서의 지도 소장 역시 금했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는 각 고을의 수령·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지도를 소유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地理志와 邑誌의 보급과 상공업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양반·사족수의 증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이제 지도가 군사·행정적 국가 기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기의 지도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작되었고, 조선 후기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정상기의 《東國地圖》 原圖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모두 필사본 全圖와 道別圖가 전한다.²⁰⁾

정상기의 《東國地圖》의 가장 큰 특징은 大縮尺地圖라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조선 全圖 대부분은 100만분의 1 이하의 小縮尺였으나, 정상기의 《東國地圖》는 대부분이 약 42만분의 1 지도로 당시까지 제작된 조선전도 중 가장 크다. 또한 지도에 縮尺을 표시한 점이 발전적인 측면이다. 정확한 거리를 지도상에 표현하기 위해 정상기가 고안해 낸 축척 표시 방법인 百里尺이란 지도상의 1尺이 실제거리 100리에 해당하고, 1寸이 10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도제작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정상기는 산천과 같은 자연요소 및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평평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누어 차별적으로 거리를 지도상에 적용하여 그동안 왜곡된 군현의 위치와 방위, 그리고 거리를 보다 정확하

20) 오상학,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pp. 25~26.

게 표현하였다.²¹⁾

2) 金正浩의 《靑邱圖》와 《大東輿地圖》

고산자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정상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도 발달에 큰 공헌을 했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알고 있는 《大東輿地圖》를 비롯해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을 뿐 아니라 『東輿圖志』, 『輿圖備志』, 『大東地志』와 같은 地理志를 저술했다. 이는 당시 申櫨과 같은 고위 무관의 도움으로 김정호는 규장각이나 비변사에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고, 崔漢綺와 같은 대학자를 통해 동·서양의 다양한 지리 지식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기의 《東國地圖》와 方格에 기초하여 고을의 형세를 표현한 상세한 郡縣지도책이 존재했다. 김정호는 이를 바탕으로 1834년 《靑邱圖》를 제작하였고, 《靑邱圖》를 제작한 지 27년 후인 1861년에 조선지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大東輿地圖》의 初版을 만들었다.

《靑邱圖》와 《大東輿地圖》는 모두 19세기에 만들어진 훌륭한 지도이다. 하지만 두 지도는 필사본과 목판본으로 그 제작 방법부터 차이가 있으며, 이는 두 지도의 제작 목적이나 지도 사용의 목적이 다를 수 의미할 수도 있다. 《靑邱圖》는 이전까지의 그 어떤 지도보다도 그 縮尺이 큰 16만분의 1이며, 오늘날의 大縮尺地圖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구분되어 있다. 南北 29層, 東西 22版으로 나누어 방안을 만들었고, 2책 또는 4책으로 되어 있어 상권과 하권을 연결하면 계속된 지도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大東輿地圖》의 경우 축척은 16만분의 1로 《靑邱圖》와 같지만 北쪽에서 南쪽까지가 22層으로 되어 있으며 각 層을 접으면 冊의 크기로 접히는 절첩식 지도이다. 冊의 크기

21) 오상학, 1994, 위의 논문, pp.30~35.
이찬, 1991, 앞의 논문, pp.354~356.

로 접은 版의 크기는 東西 80리, 南北 120리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靑邱圖》는 注記가 많지만 《大東輿地圖》의 경우에는 注記가 없으며, 지도 요소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산맥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靑邱圖》는 이전까지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인 괴충식 표현법을 쓰고 있지만 《大東輿地圖》의 경우에는 개개의 山을 표시하는 대신에 인체의 혈관계와 비슷하게 산천의 내맥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大東輿地圖》는 거리 표시를 10리마다 하고 있는데, 이는 『輿圖備志』의 직선거리와 방위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2)

22) 이찬, 1991, 위의 논문, pp. 357~360.
방동인, 2001, 앞의 책, pp 237~241.

Ⅲ. 목판본 지도의 제작과 발달

1. 목판본 지도 제작의 배경

地圖은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하므로 그 시대에 어떤 지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地圖은 제작 당시의 인쇄 기술과 같은 과학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筆寫本 지도가 아닌 木板이나 銅版으로 제작된 지도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차원에서의 지도 중시

조선 전기부터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지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太宗 2년 임금의 탄신일에 각도의 관찰사·절제사·순문사가 賀箋과 方物을 임금에게 올릴 때, 의정부에서는 賀箋과 方物을 대신해 本國의 地圖를 바쳤다고 할 정도이다.²³⁾ 그리고 세조는 왕위에 즉위한 직후에 集賢殿 直提學 양성지에게 地理志를 편찬하고 아울러 地圖를 그리게 하였으며²⁴⁾, 1467년에는 도성을 尺으로 재어서 地圖를 만들고 實錄과 여러 文籍을 상고하여 《북정록》²⁵⁾에 기록할 만한 일을 標해서 아뢰도록 했다.²⁶⁾ 또

23) 太宗實錄 卷 3, 太宗2年 5月 戊戌.

24) 世祖實錄 卷 1, 世祖1年 8月 乙卯.

25) 《北征錄》은 1460년 북쪽 毛憐衛의 여진족이 종종 변경을 침범하자 신속주로 하여금 정별케 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이홍직 편, 2003, 증보 새 국사사전, 교학사).

한 16세기에 지도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중종대였다. 중종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醫術과 더불어 天文과 地圖가 본래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기술을 가르칠 만한 教授가 거의 없음을 걱정하고 예조를 시켜 가르치고 권려하는 방도를 마련하게 하여²⁷⁾ 지도에 대한 중종의 관심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관심 속에 제작된 이러한 지도는 국가의 안정과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다. 1440년 世宗은 북방 방어책을 의논함에 있어 地圖를 참고하면서 조치하였고,²⁸⁾ 1450년 文宗은 州·郡간의 거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군사를 징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各道로 하여금 州·郡 간의 거리의 里數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참고하여 地圖를 만들도록 하였다.²⁹⁾ 그리고 성종은 1486년 會寧 長城의 上門에선 雲頭까지 長城을 쌓고 甫乙下와 竹代에 鎭을 설치함에 지도를 이용했고,³⁰⁾ 중종 역시 1509년 함경도 관찰사가 甫乙下堡의 복설과 茂山堡·豐山堡 移設을 건의하자 우선 그 지역의 사정하고 자세한 지도와 구체책을 올리도록 하였다.³¹⁾ 또한 1702년 창의문 외성을 축성하기에 앞서 우의정 申玩이 彰義門 外城의 基址圖를 숙종에게 올렸다.³²⁾ 이처럼 지도는 변방의 방어 강화책으로 진보를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축성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형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³³⁾

지도가 변방의 방어책으로, 조세와 병역 징수의 기본 자료로, 각 지역의 사

26) 世祖實錄 卷 44, 世祖13年 10月.

27) 中宗實錄 卷 64, 中宗 23年 12月 癸未.

28) 世宗實錄 卷 90, 世宗 22年 8月 己卯.

29) 文宗實錄 卷 5, 文宗 卽位年 12月 戊戌.

30) 成宗實錄 卷 194, 成宗 17年 8月 丙戌.

31) 中宗實錄 卷 8, 中宗 4年 4月 庚寅.

32) 肅宗實錄 卷 37, 肅宗 28年 10月 壬午.

33) 양보경, 1991, 앞의 논문, pp.15~16.

정을 알아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왕은 지도 사용의 편의성까지도 고려했다.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문종의 경우 평안도의 지도가 내용이 자세하여 몸체가 너무 커 펴보기에 어려우니 그것은 議政府에 보관하고, 대신 州鎭·要害·名山·大川을 대략 다시 그려 편하게 볼 수 있게 명했다.³⁴⁾ 그리고 세조는 治道함에 兵法과 事記의 경우 '소용되는 것만' 뽑아서 기록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성지가 撰述한 《東國圖經》을 장차 목판으로 새길 것을 명했고,³⁵⁾ 1757년 영조는 수찬 洪良漢이 올린 八道分圖帖을 보고 그 정밀함에 감탄하여 8도 열읍의 읍지를 올려 보내도록 했다.³⁶⁾

2) 목판 인쇄의 용이성

목판 인쇄는 복수 제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고안된 만큼 처음에는 순수한 작품성이나 예술성보다는 지식의 전파나 종교에서의 전도와 같은 목적과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발달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1234년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상정고금예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쇄에 관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인쇄 기술 중에서도 목판 인쇄술은 고려시대에 크게 발달하였고, 조선조 世宗대에는 많은 서적들이 목판으로 인쇄되었다.³⁷⁾ 이에 반해 빠르고도 비용이 덜 드는 활판 인쇄술은 그다지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금속활자 인쇄는 활자를 주조하여 갖추어 두면 무슨 책이든 찍을 수 있게 된다 한 장의 책장을

34) 文宗實錄 卷 8, 文宗 1年 7月 丙辰.

35) 世祖實錄 卷 40, 世祖 12年 11月 壬申.

36) 英祖實錄 卷 90, 英祖 33年 8月 戊辰.

37) 世宗 9년에는 《大全》, 《易經》, 《春秋》를 목판으로 새겼고(世宗實錄 卷 37, 9年 9月 戊子), 13년에는 《左傳》을 목판에 새겨 널리 간행하게 하였다(世宗實錄 卷 51, 13年 2月 癸亥).

필요한 수단쯤 찍어낸 다음, 다음 장을 찍으려면 활자를 풀어서 다시 쓸 수 있고 필요한 자는 얼마든지 다시 주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활판 인쇄 수준은 한 판에서 파루에 열 장 남짓 찍어낼 정도였다. 그 후 太宗대에 만들어진 계미자는 활자 밑 끝을 뽀족하게 만들어 밀랍 바탕에 활자를 꽂아 판을 짜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방법도 책장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몇 장을 밀어내고 나면 활자가 흐트러져서 인쇄를 멈추고 활자를 다시 바로잡아야 했다. 이렇게 빈번하게 인쇄가 중단되었으므로 하루에 여러 장을 인쇄하기가 어려웠다. 비록 활판 인쇄술이 목판 인쇄술보다 여러 면에서 더 경제적이기는 하였지만, 특히 世宗대에 많은 양의 서적을 인쇄하기에는 활판 인쇄술이 아직 느리고 비효율적인 공정이었다. 즉, 목판 인쇄의 경우 비록 경제적인 면이나 판본의 보관이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선 판각이 쉽고 또한 한번 제작된 내용의 수정·보완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수정이 용이하여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장이 아닌 다량을 목적으로 한 지도 제작에 있어서도 목판 인쇄 기술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조선시대에 목판 인쇄술의 발달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지도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다. 즉 국가의 관심 속에 행정, 군사 목적으로 만든 대형 도별 군현집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으며, 모두 필사본으로 그 사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輿地圖》 또는 《天下地圖》라는 책명이 붙은 간략한 지도책이 다양하게 간행되어 보급되었는데, 이는 民間에서의 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차원에서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도 제작이 활발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발달로 인한 물자의 교류, 교통의 발달에 부응해서 발달한 지도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팔도총도와 도별분도는 당시의 지방수령 및 선비들에게 필수적인 지리지식을 줄 수 있는 지도였을 것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지도 보급과 유행에 대한 이와 같은 추정을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전하는 많은 지도책의 수량, 지도의 다양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³⁸⁾

2. 木版本 地圖의 發達

1) 소형 木版本 地圖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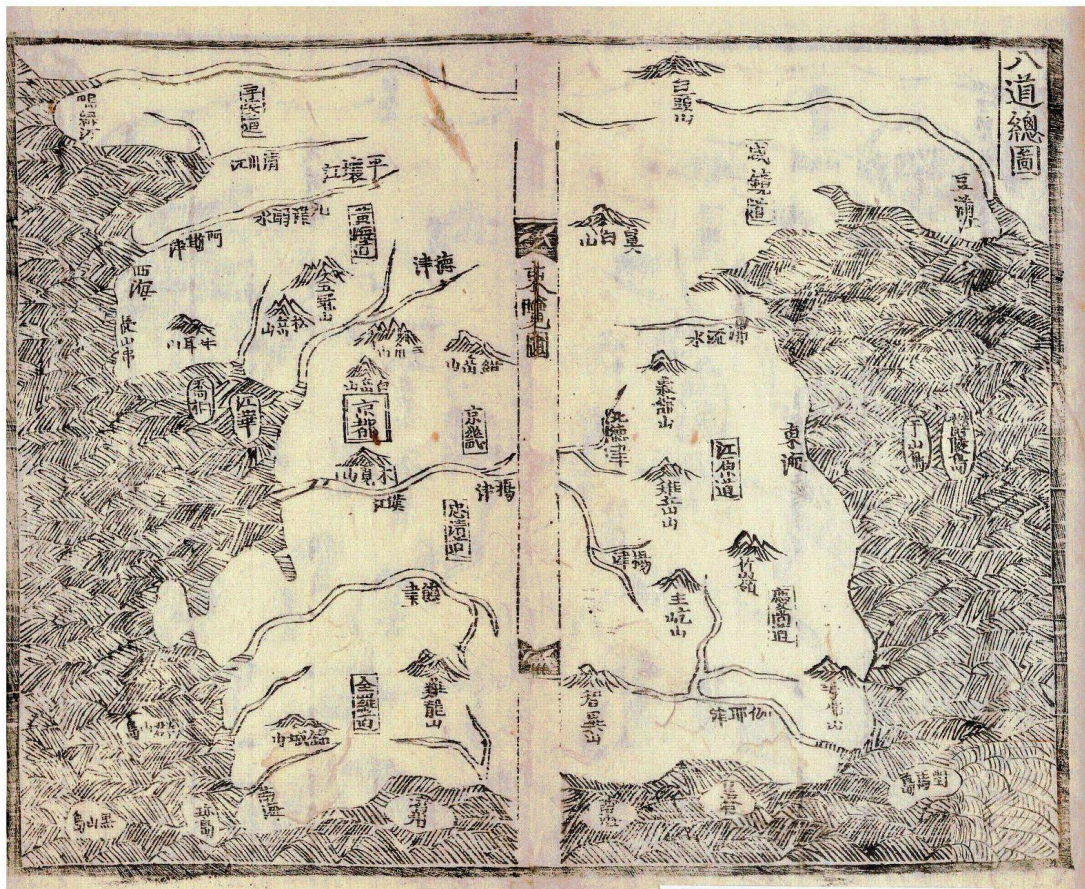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목판본 지도가 제작된 것은 15세기부터이다. 신숙주가 1471년(성종 2)에 지은 《海東諸國紀》에 포함된 일본, 유구국 지도가 그 호시이다. 우리나라 지도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에 수록된 <八道總圖>를 비롯한 9장의 지도가 가장 먼저 제작된 것이나 하나의 독립된 지도는 아니었다. 이것은 곧 지도가 하나의 독립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기보다는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지도들이 17세기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 《輿地圖》 또는 《天下地圖》라는 책명을 붙인 간략한 지도책(또는 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이는 국가에서 행정·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海東地圖》와 같은 道別郡縣地圖集과는 그 목적이 다른 만큼 지도의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다양하다. 이는 조선 후기의 목판 인쇄술의 발달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³⁹⁾

이러한 지도책은 대부분 단일 지도가 아니라 天下圖·中國圖·日本圖·琉球圖·道別圖, 그리고 조선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全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8) 이찬, 1991, “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pp.91~95.

39) 이찬, 1991, 앞의 논문, p.365.

그리고 국가가 아닌 대부분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지도책 대부분에 편자와 刊記가 없어 지명의 변천이나 군현의 昇降, 지도책에 戶口와 田結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戶口와 田結數를 기준으로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찬은 조선 후기의 지도책 제작연대를 17~18세기와 18~19세기의 것으로 大別하였다.⁴⁰⁾



[그림 1] '東覽圖'에 수록된 <八道總圖>(古4709-107)⁴¹⁾

40) 이찬, 1991, 위의 논문, p.367.

그러나 그 이후 민간에서 제작된 地圖冊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이런 유형의 지도가 어느 정도이며, 언제 제작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41) <八道總圖 (帖東覽圖)>는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25.6*16.5cm 크기의 목판본 지도이다.

小型 木版本 地圖冊의 구성 중 朝鮮全圖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윤곽이 대부분 16세기에 목판으로 인쇄되어 군현에 배포되었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東覽圖’와 상당히 비슷하다. 즉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 윤곽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책 크기에 맞춰 지도를 그렸기 때문이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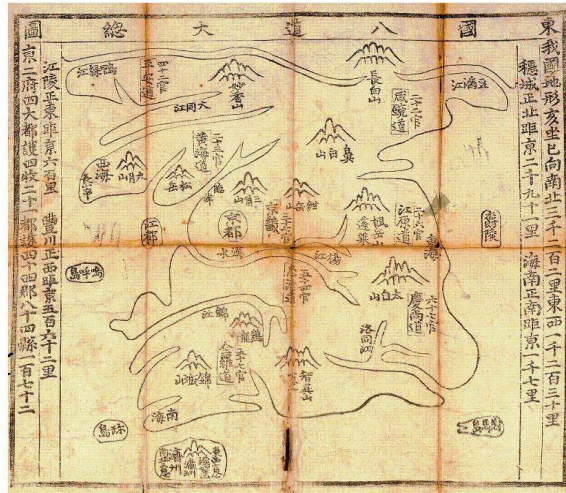
그러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같은 이름의 지도에서도 전혀 다른 版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地圖》라는 지도첩 속 있는 <東國八道大總圖>(그림 2) 역시 전체적인 윤곽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와 비슷하나 <八道總圖>에는 그려지지 않은 평안도의 妙香山, 황해도의 九月山, 현재의 금강산인 강원도의 楓岳山, 경상도의 太白山, 그리고 제주도의 漢拏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의 이름 역시 <八道總圖>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八道總圖>에 그려졌던 파도무늬가 표현되지 않았고, <八道總圖>에 비해 제주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다. 또한 《輿地圖》에 수록되어 있는 <東國大總>(그림 3)의 경우에는 평안도 부분에 淸川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앞의 두 지도에서는 八道の 지명이 □ 모양 안에 적혀 있지만 <東國大總>에서는 팔도의 지명이 □가 아닌 ○에 표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京은 八道와 구분하여 ●로 표현했고, 3종의 지도가 모두 각기 다른 표현 방법으로 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도책(또는 첩)이 민간에서 유행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지도가 담고 있는 내용의 차이는 곧 당시의 지도 쓰임이나 지도 제작 목적을 알려주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地理志에 지도를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⁴³⁾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지도책에 수록된 全圖의 경우 독자적인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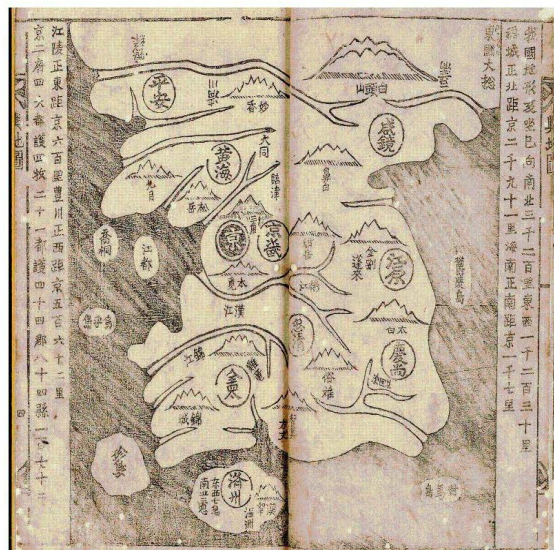
42) 이찬, 1991, 앞의 책, 도판해설 p.386.

43)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8.

도 이용보다는 地理志의 보조적인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제작된 筆寫本 地圖보다 지도 모양이 정확하지 못하며, 내용면에서도 부족하다.



[그림 2] <東國八道大總圖> (가람고912.6-j561)⁴⁴⁾



[그림 3] <東國大總圖> (古4709-58)⁴⁵⁾

44) 《地圖》冊에 수록된 <東國八道大總圖>는 30*33.4cm 크기의 목판본 지도로,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이다.

45) 《輿地圖》冊에 수록된 <東國大總圖>은 27*32cm 크기의 목판본 지도이며,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이다.

2) 最古의 목판본 地圖冊 《東國地圖》

《東國地圖》는 조선시대 地圖冊 속에 포함된 지도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목판본 지도의 선구자이자, 현재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 지도이다. 필사본 지도가 국가 또는 지극히 제한된 지도 이용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목판본 지도는 지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그 범위 또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판본의 경우 간행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東國地圖》를 간행하였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종대에 조선 사회의 문화·경제적 수준이 지도를 목판으로 간행할 수 있을 정도임을 말해 주는 것이며, 매우 정교하고 정제되어 있는 목판의 판각 수준을 통해 인쇄 기술 수준까지도 엿볼 수 있다.⁴⁶⁾

《東國地圖》는 목판본 지도라는 제작 방법상의 평가 이외에도 내용면에서 16세기의 지리적인 실상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데 의미가 있다. 16세기 이전의 지도는 대부분이 세계지도나 동양지도, 그리고 조선전도였으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윤곽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수록된 ‘東覽圖’ 경우, 지역 단위에 상세한 내용보다는 각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산천을 위주로 수록한 禮俗에 관련되어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東國地圖》는 연속적인 내용에 제한된 목적을 지닌 지도가 아니라, 군현의 별칭, 좌우도 또는 남북도·상하도의 구분과 소속, 군현의 품계 등이 수록되어 있어 각 지방의 군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하던 小型 木版本 地圖冊에 수록된 지도들이 地誌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었다면, 《東國地圖》는

46) 양보경, 1991, 앞의 논문, pp.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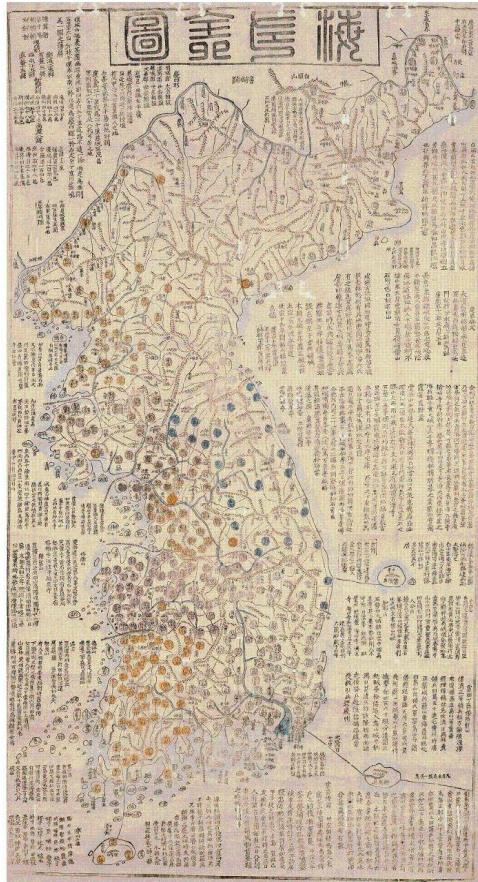
독립적으로 편찬된 지도책으로 17세기에 널리 유행된 독립된 도별 지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⁴⁷⁾

3) 鄭尙驥 《東國地圖》 유형의 《海左全圖》

조선 후기에 이르러 冊에 크기에 맞추기 위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주던 이전까지의 목판본 지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윤곽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목판본 지도 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海左全圖》가 그 대표적인 지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필사본 중심의 정상기 지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판본 지도인 《大東輿地圖》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필사본 지도와 목판본 지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또한 지도 발달과 이용의 큰 변화이자 혁신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도들을 정상기의 《東國地圖》형으로 분리한 것은 북부지방의 국토 윤곽이 후에 제작된 김정호 지도보다는 정상기 지도 계열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海左全圖》의 경우 길이가 1m 정도로 벽에 걸어서 한눈에 볼 수도 있으며, 휴대하기에도 그리 불편한 크기의 지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山川의 위치 및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군현명, 鎭堡·營鎭·城郭 등과 같은 군사적인 요소, 그리고 驛院·浦口와 같은 교통적인 요소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 주변 공백에 註記를 풍부하게 삽입하여 地誌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海左全圖》의 경우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지도이며, 동시에 지도만으로는 부족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 地誌의 성격까지도 갖고 있다. 이것은 예전 地理志의 보완적 역할을 했던 지도가 지리지의 客이었다면, 《海左全圖》에서는 地誌적 성격을 갖고 있는 註記가 주인 지도를 돕고 있는 客의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4).

47) 양보경, 1991, 위의 논문, pp.23~24.



[그림 4] 《海左全圖》(古軸 912.51-H118)⁴⁸⁾

그러나 아직까지 《海左全圖》는 물론이고 이런 종류의 목판본 지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제작시기도 19세기 중엽으로 추정할 뿐이며,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정도 크기의 지도가 목판으로 만들어질 정도라면 이 시대에 이 지도의 가치가 유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도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판각 수준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지도가 《大東輿地圖》보다 먼저 목판으로 만들어진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

48)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3장 중 하나로, 98*59.2cm 크기의 목판본지도이다.

는다고 볼 수 있다.

4) 목판본 지도의 결정체인 《大東輿地圖》

목판본 지도가 지도의 보급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大東輿地圖》는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도의 규모면에서도 대형 목판본 전국지도였다. 물론 《大東輿地圖》이전에 목판본 전국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목판본 전국지도로는 세로 길이 1m정도의 《海左全圖》와 길이 140cm정도의 《八道全圖》 등이 있다. 하지만《海左全圖》와 비교해 볼 때 길이로 약 6.7배, 넓이로는 약 45배인 《大東輿地圖》는 각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大東輿地圖》이전에도 정확한 지도들이 제작되었으나, 제작 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필사본으로 제작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작의 한정은 곧 지도 이용자의 제한의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大東輿地圖》는 인쇄본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지도를 찍어낼 수 있어 지도의 보급이 용이하고, 지도를 대중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大東輿地圖》는 대중성에만 목적을 둔 지도가 아니다. 목판본 지도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여 내용상의 풍부함 위에 목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선명함까지도 지니고 있다.⁴⁹⁾ 특히 이전의 지도에서 즐겨 사용하던 설명식의 註記를 없애고 비록 누정, 사찰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14개 항목의 地圖標를 제시하여 지도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도식화하여 기호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항목들은 국가의 행정·군사·재정 등과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地誌的 내용의 기재가 생략되어 주기를 중시하던 지도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근대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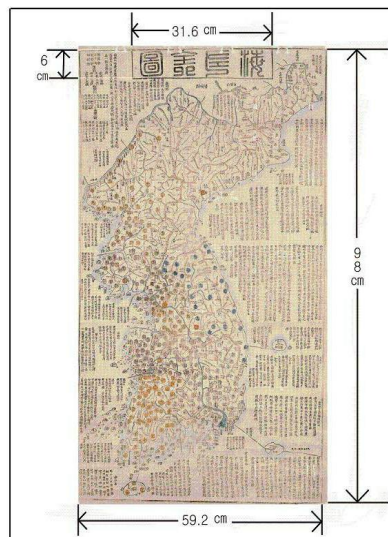
49) 양보경, 1998,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민강좌 23집, pp.54~56.

IV. 木版本 《海左全圖》의 제작방법 및 제작시기

1. 《海左全圖》의 형태

《海左全圖》는 지도의 세로 길이가 약 1m 정도로, 그 크기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했던 정상기 계열의 필사본 지도 중 대형 전도가 아닌 필사본 소형 전도와 비슷하다. 또한 《海左全圖》는 여러 장의 지도로 구성된 地圖帖의 일부분이 아닌 한 장으로 독립된 목판본 全圖이다.

규장각 소장본의 《海左全圖》(古軸915.51-H118) 경우, 지도의 크기는 종이 전체 크기가 아닌 지도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윤곽선 안쪽의 크기로 세로 98 * 가로 59.2cm이다. 그리고 《海左全圖》라는 지도명이 적혀 있는 사각형의 크기는 가로가 31.6cm이며, 세로는 6cm이다(그림 5).



[그림 5] 《海左全圖》(古軸915.51-H118)의 크기

50) 양보경, 1998, 위의 논문, pp.52~54.
오상학, 2001, 앞의 논문, pp.52~59.

이미 앞에서 《海左全圖》를 정상기 계통의 지도로 분류했다. 이는 부분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지도의 전체적 윤곽, 특히 북부지방의 모습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정상기의 《東國地圖》 修正本 系列에서는 오늘날의 中江津에서 晚浦로 이어지는 鴨綠江의 유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만입된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그 이후 19세기에 제작되는 여러 지도에서 보인다. 반면, 정상기의 《東國地圖》 系列의 地圖에서는 그 부분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海左全圖》도 역시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상기의 《東國地圖》 系列의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⁵¹⁾ 또한 김정호는 『大東地志』에서 咸鏡道 明川에 있는 峽山을 東南 七十里로 고치면서 해안선의 윤곽 또한 그 이전의 지도와는 다르게 나타냈다. 하지만 《海左全圖》의 경우에는 그 이전 지도의 모습과 유사하다.⁵²⁾



[그림 6] 《海左全圖》의 북부지방

51) 오상학, 1994, 앞의 논문, p.74.

52)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咸鏡道 明川 부분을 보면, 峽山이 東南 百七十三里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지도에서 그 부분의 해안선이 돌출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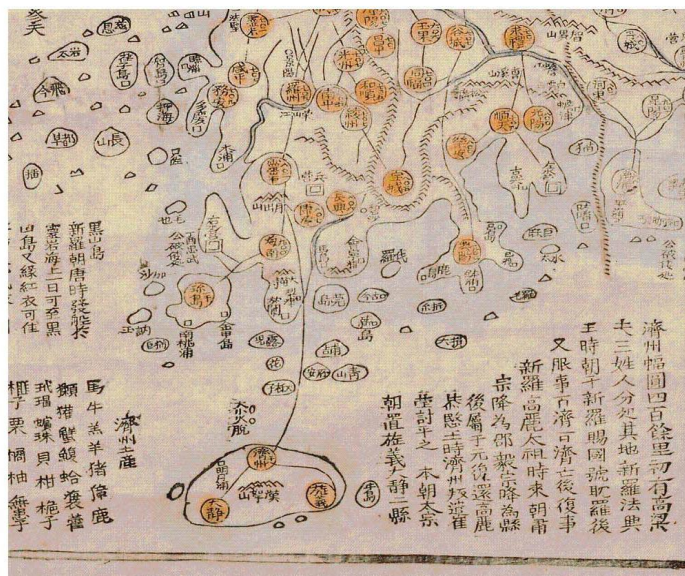
[그림 7] 《東國地圖》형 地圖와 《海左全圖》의 윤곽 비교⁵³⁾

그러나 전라도를 포함하는 남부지방의 경우는 북부지방과는 달리 《東國地圖》형 地圖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東國地圖》의 原本 系列에서는 제주도의 旌義縣 서쪽 지역이 호수로 되어 있으며, 지금의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白也串을 섬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初期 修正本 系列 지도에서는 原本 系列의 이런 오류 부분들을 바로 잡고 있다.⁵⁴⁾ 《海左全圖》의 경우 제주도 旌義縣 서쪽을 호수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고흥반도와 여수사이에 白也

53) 왼쪽은 圭南 河百源의 《동국지도》와 《海左全圖》의 윤곽을 비교한 것이고, 오른쪽은 《아국총도》와 《海左全圖》의 전체적 윤곽을 비교한 것이다.

54) 오상학, 1994, 위의 논문, pp.70~76.

串을 섬으로 표시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길이 1m 정도의 목판본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海左全圖》(古軸915.51-H118)에는 크고 작은 섬 251개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판본이 다른 《海左全圖》의 경우에는 이 보다 많은 섬이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섬을 표시한 수만으로도 《海左全圖》가 섬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표시된 섬의 수만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8] 《海左全圖》의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부분

《海左全圖》의 전체적 형태와 크기는 이와 같으며, 지도에 표현된 내용은 全圖 상에 직접 표시한 정보와 地圖 여백에 표시된 주기에 나타나고 있다. 全圖에 직접 표시된 정보는 조선 후기의 다른 전도에 나타나 있는 것과 비슷하게 山川 등의 자연적 정보와 軍현·진보 등의 행정적·군사적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다른 전도와 달리 《海左全圖》의 경우,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도의 좌측과 우측, 그리고 하단 여백을 이용하여 全圖

에 표현하지 못한 지리적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海左全圖》의 전체적 모습과 정보를 보았을 때, 《海左全圖》는 한 장의 全圖를 놓고 그대로 모사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각 부분마다 필요한 地理的 情報가 잘 나타나 있는 여러 종의 지도를 종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여러 장의 지도를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장의 지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地圖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도전문가였을 것이다. 또는 그 정도의 정보와 실력을 갖추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海左全圖》의 제작방법

木版本 地圖인 《海左全圖》는 기본적으로 목판 위에 나타내고자 하는 地理的 事象 즉, 自然的·人文的 要素들을 양각으로 파내 찍어낸 지도이다. 지도 전체의 길이가 1m 정도인 이 全圖는 남북 4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판의 구분은 현재 《海左全圖》의 版木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상에 나타난 판각 모양과 지도상에 나타난 특징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후에 따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註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도판과 동일한 판에 註記가 새겨져 있다.

《海左全圖》의 경우, 그 이전까지 만들어진 木版本 地圖와는 그 모습이나 성격이 다르다. 이전에 만들어진 地圖는 地理志의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이 컸으므로 지도의 윤곽이 地理志의 크기에 맞춰 남북으로 압축된 모습을 하고 있었고, 地圖의 표현된 내용 역시 하나의 독립된 地圖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海左全圖》는 地理志에 수록된 地圖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朝鮮全圖로, 地圖의 전체 윤곽을 이전의 木版本 地圖와 달리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 표현된 내용 역시 자연적 요소는 물론이고 인문적 요소까지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군현의 지명 옆에는 서울까지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정상기의 《東國地圖》를 비롯한 朝鮮全圖의 모습으로, 이 시기에 유행했던 筆寫本 地圖가 木版本으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海左全圖》의 제작시기

우리나라 고지도 중 정확히 제작연대를 표기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의 표현 내용·주기 등을 바탕으로 지도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지도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지도의 내용 중 地名의 變遷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地名은 지도라는 평면적 공간위에 地理的 事象의 절대적·상대적 위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에 비교하면 과거의 지리적 정보 전달은 제한적이며,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즉, 지명의 변화가 오늘날처럼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지명의 변천이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명의 변천과 더불어 山·江 등의 自然的 要素의 표현과 道路·鎭堡·山城·史庫 등 지도에 표현된 人文的 要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 여백에 쓰여 있는 註記 역시 지도의 표현 내용과 더불어 지도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⁵⁵⁾

《海左全圖》의 경우 지도를 제작한 곳이나 제작자가 언급되지 않고, 제작

55) 오상학, 1994, 앞의 논문, p.46.

시기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에 나타나 있는 地理的 要素 및 여백에 쓰여 있는 註記를 통해서 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함경도의 영흥만 부근에 ‘純祖二十二年置厚州’라고 쓰여 있는 註記를 통해 1822년 厚州府가 처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1857(철종 8)년부터 사용된 純祖라는 廟號가 사용되었음⁵⁶⁾을 통해 이 지도가 1857년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도의 표현 내용 중 지명을 통해서도 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함경도의 厚州가 鎭에서 1822년에 厚州府로 승격, 독립된 군현으로 설치되었는데, 厚州府로 나타나 있으며,⁵⁷⁾ 1823년에서 1866년까지 혁파되었던 경기도의 豊德이 군현으로 표현되지 않고 古縣名으로만 남아 있다.⁵⁸⁾ 그리고 함경도의 長津은 府가 아닌 鎭으로 표현되어 있다. 長津의 경우 鎭으로 강등된 것이 1843년에서 1859년까지로⁵⁹⁾, 이를 통해 이 지도의 제작시기의 하한선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長津, 豊德, 厚州 이외에도 [표 1]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製作時期를 추정해 보면, 《海左全圖》는 純祖라는 廟號가 사용되기 시작한 1857년에서 장진이 다시 府로 승격되기 이전인 185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신여대에 소장된 《海左全圖》⁶⁰⁾의 경우, 지도명은 목판본 《海左全圖》

56) 哲宗實錄 卷 9, 哲宗 8年 8月 戊午.

57) 純祖實錄 卷 25, 純祖 22年 9月 辛丑.

58) 純祖實錄 卷 26, 純祖 23年 8月 壬子.
高宗實錄 卷 3, 高宗 3年 11月 辛酉.

59) 憲宗實錄 卷 10, 憲宗 9年 8月 壬寅.
哲宗實錄 卷 11, 哲宗 10年 10月 戊子.

60) 현재 성신여대 박물관에는 4장의 《海左全圖》가 소장되어 있으며, 3장은 木版本 지도이고 나머지는 筆寫本 지도이다. 筆寫本인 이 지도(성신여대 46)의 크기는 106.5*56cm이며, 방안의 크기는 3.3*3.3cm로 남북 28, 동서 15로 되어있다.

와 같지만(그림 9, 그림 10) 筆寫本 지도로 지도 여백에 주기가 없다. 그리고 지도의 전체적 윤곽이 목판본 《海左全圖》를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김정호의 지도와 비슷하다. 즉, 《海左全圖》(성신여대 46)의 경우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이 木版本 《海左全圖》와는 다르다. 북부지방의 윤곽, 특히 중강진 부분이 좌측으로 돌출해 있어 김정호의 《大東輿地圖》 등의 전도 유형을 따르고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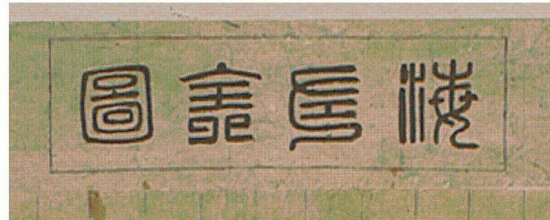
[표 1] 《海左全圖》의 製作時期 推定을 위한 資料

연대	도명	내용	출처
1767년 (영조 34)	경상	山陰을 山淸으로 개명	영조실록
	경상	安陰을 安義로 개명	영조실록
1776년 (정조 즉위)	평안	理山을 楚山으로 개명	정조실록
	충청	尼山을 尼城으로 개명	정조실록
	경기	楊州에 元陵을 봉릉	문헌비고
1779년 (정조 3)	경기	喬桐의 統禦營(水營)을 강화로 옮김	대동지지
1785년 (정조 8)	함경	長津에 僉使鎭을 둠	대동지지
1787년 (정조 11)	함경	長津府를 처음으로 설치	정조실록
1789년 (정조 13)	경기	水原의 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옮김	정조실록
1793년 (정조 17)	경기	水原府를 留守府로 승격	대동지지
1795년 (정조 19)	경기	衿川을 始興으로 개명	정조실록
1796년 (정조 20)	함경	厚州鎭을 설치하고 僉使를 배치	정조실록
	경기	수원성곽 축성 완료, 華城府로 개명	정조실록
1800년 (순조 즉위)	함경	利城을 利原으로 개명	순조실록
	충청	尼城을 魯城으로 개명	순조실록
	경기	正祖를 건릉에 봉릉	문헌비고
1808년 (순조 8)	경상	東萊의 金井山城 낙성	순조실록
1822년 (순조 22)	함경	厚州府를 처음으로 설치	순조실록
1823년 (순조 23)	경기	豊德府를 혁파하여 개성에 합침	순조실록
1824년 (순조 24)	황해	黃州牧을 黃岡縣으로 강등	순조실록
	경기	別廟의 宮號를 景祐宮으로 정함	순조실록
1834년 (순조 34)	황해	黃岡縣을 다시 黃州牧으로 승격	순조실록
1843년 (헌종 9)	함경	長津府使를 僉使로 강등	헌종실록
1849년 (헌종 15)	경상	한산도에 鎭을 설치	헌종실록
1857년 (철종 8)		純宗의 묘호를 純祖로 고침	철종실록
1859년 (철종 10)	함경	長津을 다시 長津府로 승격	철종실록

두 지도(그림 9, 그림 10)의 경우 제작 방법부터 다르다. [그림 9]의 경우에는 목판본 지도이며, [그림 10]의 경우에는 필사본 지도이다. 또한 지도의 윤곽도 서로 다르며, 필사본 《海左全圖》의 경우 목판본과는 달리 방안 위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두 지도는 《海左全圖》라는 같은 題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경우 함경도의 長津을 鎭이 아닌 府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지도는 목판본 《海左全圖》보다 늦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 목판본 지도⁶¹⁾의 題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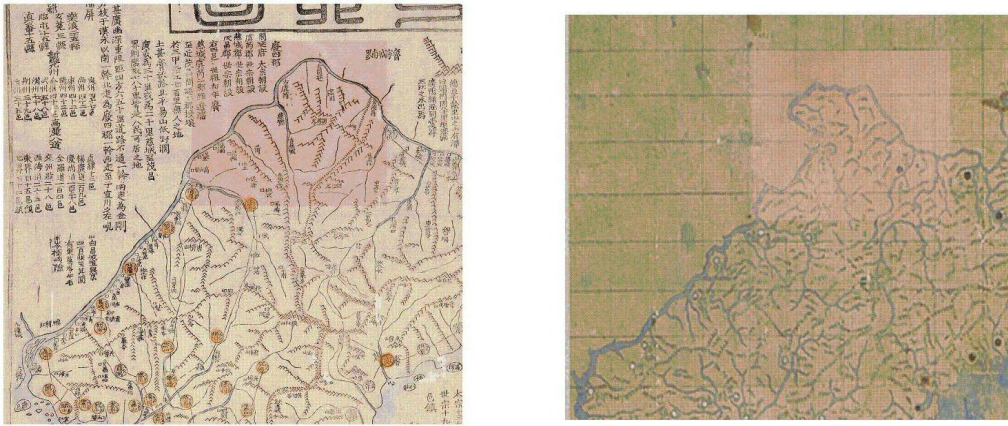
[그림 10] 필사본 지도⁶²⁾의 題名

[그림 11]의 목판본 《海左全圖》(古軸 912.519-H118)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며, 필사본 지도는 성신여대(성신여대 46) 소장본이다. 두 지도의 북부지방 모습을 살펴보면, 폐사군 지역으로부터의 압록강유로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필사본 《海左全圖》에 나타나는 북부지방 모습은

61)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海左全圖》(古軸4709-72)의 일부분이다.

62) 성신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海左全圖》(성신여대 46)의 일부분이다.

김정호의 지도 모습에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그러나 남해안의 해안선 모습은 김정호의 전도와 차이가 있다.



[그림 10] 목판본 《海左全圖》(左)와 필사본 《海左全圖》(右)의 북부지방



[그림 12] 필사본 《海左全圖》의 윤곽 비교⁶³⁾

63) 왼쪽은 필사본 《海左全圖》 위에 목판본 《海左全圖》를 겹쳐 윤곽을 비교한 것이고, 오른쪽은 필사본 《海左全圖》 위에 《대동여지전도》와의 윤곽선을 겹쳐 비교한 것이다.

V. 《海左全圖》의 내용 분석

《海左全圖》가 목판본 지도인 만큼 筆寫本 地圖에 비해 현재 다수의 지도가 전하고 있다. 그러나 《海左全圖》 경우 하나의 版本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다. 《海左全圖》에 수록되어 있는 자연적 정보와 인문적 정보의 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비교했으며, 내용 분석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海左全圖》(古軸 912.51-H118)를 기본으로 하였다.

《海左全圖》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地圖 형태상의 특징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도가 길이 1m 정도의 木版本 全圖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지도에 나타나 있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 筆寫本 地圖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 여백에 뾰뾰이 적혀있는 註記가 그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다. 또한 《大東輿地圖》와 같이 따로 地圖標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海左全圖》에 표현된 자연 정보

《海左全圖》는 산지·고개·하천, 그리고 도서 등의 자연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도에 비해 매우 자세한 편이다.

지도에서 山은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겹쳐진 산(∧)의 줄기형으로 산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威鏡道에 있는 白頭山이나 長白山, 全羅道の 智異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 높이와

접침의 정도로 산지의 高低와 險夷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지도 오른쪽 여백에 기록된 註記를 통해 유명한 山에 대한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산의 위치나 높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에 대한 부분 중 大池에 ‘山巔有池 如人顛穴 周可二三十里 水色黝黑 不測四月 水雪委積 望之漠漠銀海也’라고 적혀 있다. 池의 크기만을 간략하게 써 놓지 않고 ‘사람의 뺨에 있는 구멍(보조개)과 같다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그곳에 눈이 쌓여 있는 풍경을 漠漠銀海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江原道 歙谷~高城의 해안선 바로 옆에는 통천의 叢石亭, 고성 四仙亭, 그리고 간성의 淸澗亭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동팔경인 ‘襄陽洛山寺 江陵鏡浦臺 三陟竹西樓 蔚珍望洋亭 平海越松亭’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요즘 관점에서 보자면 마치 백두산과 강원도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광고 문구처럼 보인다. 長白山의 경우에는 이름의 유래도 적혀있다. 이런 註記가 기록된 산은 함경도의 백두산과 장백산, 평안도의 낭림산과 묘향산, 황해도의 구월산과 수양산 및 멸악산, 강원도의 금강산과 설악산과 태백산, 충청도의 속리산과 계룡산 및 덕유산, 전라도의 변산과 지리산, 그리고 경상도의 팔공산과 가야산이다.

그런데 지도 부분에는 山名 중 경상도의 淸涼山을 淸京山으로 誤記하고 있으며, 註記부분에서도 定界碑文에서 ‘大清’을 ‘大瀆’로 잘못 기록해 놓았다.

하천의 경우에는 실선을 사용해 나타내고 있다. 큰 하천은 두 줄의 실선으로, 작은 하천은 한 줄의 실선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註記에는 하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白頭山과 관련된 부분에 黑龍江의 근원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전부이다.

《海左全圖》의 경우 島名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작은 섬까지 포함하여 250개가 넘는 섬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註記에도 중요한 섬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렇지만 섬에 대한 註記의 내용은 산과는 달리 역사적인 측면과 인문적인 측면이 강하다. 鬱陵島의 註記 내용을 보면, ‘鬱陵島 本于山國 特險不服 新羅遣異斯夫擊降之’이라는 기록이 있다. 즉 신라 시대에 이사부에 의해 독립국이었던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海左全圖》는 우산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註記에 명시함과 더불어, 우산국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독도 연구와 관련해 《海左全圖》가 중요한 자료이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⁶⁴⁾ 그리고 ‘自中峯東至海 一万餘步 西至海 一万二千餘步 北至八千餘步’의 기록을 통해 鬱陵島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濟州道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우선 ‘濟州幅圓四百餘里’라고 섬의 크기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초기 ‘高梁夫’ 3성이 그 땅을 나누어 살았다는 『高麗史』의 地理志 부분에 나오는 개벽설화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新羅 法興王 때 國號를 耽羅라고 한 이후, 朝鮮 太宗 때에 ‘旌義’, ‘大靜’ 2개의 縣이 설치되었다는 내용 등 제주도의 연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濟州土產」 조항을 따로 설정해 기록했다. 이 이외에도 중요한 섬으로 평안도의 신미도, 황해도의 백령도, 경기도의 덕적도, 전라도의 흑산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이외에 자연적 정보는 산과 더불어 고개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串으로 황해도 長淵의 長山串과 경상도의 冬乙背串 두 곳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함경도에는 ‘天坪’과 강원도 평강에서 함경도로 연결되는 도로의 요충지였던 ‘三防’이 기록되어 있다.

64) 서론에서 독도와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海左全圖》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海左全圖》 지도상에 표시된 우산국의 모습과 위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註記의 내용 때문이다.

2. 《海左全圖》에 표현된 인문 정보

《海左全圖》에 표시된 내용은 크게 군현의 행정·진보·도로·역원 등의 행정·군사·교통적 측면, 그리고 사찰이나 史庫·명승지 등의 문화적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행정과 관련하여 보통 필사본 지도에서는 色으로 도별 경계를 표시하지만, 木版本 지도인 《海左全圖》는 色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선을 이용해 경계를 나누었다. 물론 대부분의 지도에는 후에 지도 이용자가 도별 경계를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色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色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木版本 地圖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지도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정보만의 구분에 色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지도의 용도나 목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행정적 측면의 또 다른 정보는 京과 監營을 포함한 군현에 관한 것이다. 수도 서울은 이중의 원(◎) 안에 ‘京’이라고 표시하였고, 일반 군현의 경우에는 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監營은 일반 군현과 구별하기 위해 원(○) 옆에 ‘監營’이라는 문자를 적었다. 그러나 강원도 原州에는 ‘監營’이라는 문자가 빠져있으며, 古縣名⁶⁵⁾에 대한 구별이 따로 없다. 또한 경상도의 金山을 金川으로 잘못 표기했다.

그리고 원(○) 안에는 군현명 이외에도 道里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서울까지의 里數를 표시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숫자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에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대부분 단위 수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2,400里’의 경우 ‘二

65) 《海左全圖》에 표기된 古縣名은 廢四府와 경기도의 豐德, 강원도의 亥安이다.

千四百里'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海左全圖》의 경우에 이 같은 표현 방법은 지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간편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小圈을 사용하였으니, 독창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0] 은 아라비아 숫자 [0] 이 아니라 기호인 것이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이 방식은 후에 《大東輿地全圖》에서도 사용되었다.⁶⁶⁾ 道里의 경우 경상도의 豊基와 전라도의 大靜, 旌義에 그 숫자가 빠져 있다. 그리고 경상도 巨濟의 경우에는 서울까지의 거리가 1040里인데,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인 《海左全圖》(古軸 315.51-H118)에는 [一千四]로 표시되어 있고 《海左全圖》(古軸 4709-100)에는 [-0四]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巨濟의 경우 위의 두 가지 표현 방법 모두 잘못된 것으로, [千四十] 또는 [-00四]으로 표기해야 옳을 것이다.

[표 2] 《海左全圖》의 道里 표현 방법

군현명칭	距京里數	《海左全圖》의 표현방식
함경도 온성	1,930리	-0九0三
경기도 고양	40리	四0
평안도 의주	1060리	千六十
강원도 삼척	660리	六0六
충청도 옥천	400리	四00

군사와 관련된 정를 살펴보면, 統營·水營·兵營의 경우에는 이중 사각형을 사용했고, 鎭堡의 경우에는 작은 사각형으로 구별했다. 그리고 일반 군현과 병영이 겹치는 경우에는 군현명 옆에 직접 문자로 표기해 구별했다. 그러나 군사와 관련된 정보가 풍부한 편이 아니다. 山城의 경우에는 평안도에 慈母山城

66) 오상학, 2001, 앞의 논문, pp.89~90.

과 姑山城만이 표기되어 있으며,烽燧와 관련된 정보도 없다. 역과 관련된 정보는 작은 원을 사용해서 다른 정보와 구별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정보로는 유명한亭이나 寺를 지도에 표시했으며, 註記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5대 史庫인 江陵의 오대산사고·奉化의 태백산사고·江華의 마니산사고·茂朱의 적상산사고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倉으로는 유일하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강원도 原州의 興原이 나타난다. 興原은 漕倉으로 강원도 남부의 稅穀을 한강을 통해 서울까지 운반했던 곳이다.

지도의 사방 여백을 활용해 많은 註記를 기록해 놓은 점이 《海左全圖》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註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의 왼쪽 위에 檀君朝鮮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이 적혀있고, 閔延府·虞芮郡·慈城郡·茂昌郡 등 폐사군이 설치된 시기 및 世祖初年에 四邑을 廢했다는 내용과 새로 개척한 廢四郡과 六鎭을 포함한 함경도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의 우측 상단에는 慶源에서 東北으로 70餘里 떨어진 先春峯에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碑를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海左全圖》의 이런 註記 내용은 지도 한 장위에서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 과거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자연적 정보에 대한 註記가 오늘날 관광지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는 중요한 섬들의 연혁과 더불어 역사지도의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海左全圖》는 당시 단순한 지리적 위치 정보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VI. 《海左全圖》의 유형 분석

1. 판 유형에 따른 《海左全圖》의 분류

《海左全圖》의 경우 白頭山定界碑의 註記부분에 ‘大清’으로 기록된 地圖와 ‘大瀆’로 기록된 地圖가 현존하기 때문에 다른 두 판이 존재함은 이미 알려져 있다.⁶⁷⁾ 그러나 아직 그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또 다른 판의 有無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본 논문은 《海左全圖》의 상이한 판의 존재 여부와 판의 유형 구분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의 분석을 위해 17장의 《海左全圖》 원본 지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17장의 《海左全圖》 원본 지도는 대부분 공공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표 3]과 같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17장의 지도 중 성신여대 박물관에 있는 1장의 《海左全圖(6)》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海左全圖(12)》은 목판본이 아니고 필사본 지도이기 때문에 판 유형 분류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영남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海左全圖(9)》의 경우에는 《華東歷代帝王傳授總圖》, 《聖賢道統圖》가 함께 장첩되어 있다.

15장의 木版本 《海左全圖》를 비교한 결과, 크게 3종류의 다른 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판 유형에 의한 분류로, 지도가 전체 몇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도에서 판이 나뉘는 위치를 비교하여 분류한 것이다. 세 개의 유형 중 두 유형은 4개의 판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유형은 5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4개의 판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판이 나뉘는 위치가 서로 다른데, 각각 (가), (나), (다) 유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67) 이찬, 1991, 앞의 책, 도판해설부분, p.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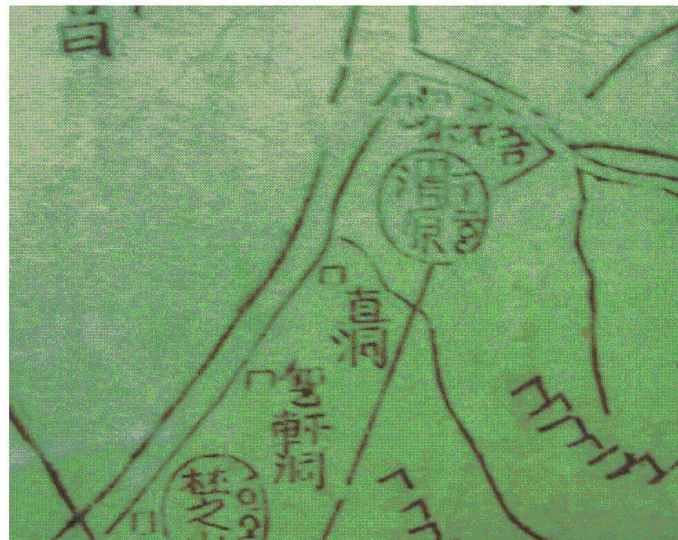
[표 3] 연구에 사용한 《海左全圖》

	지도명	분류번호	소장처	규격 (종*횡cm)	판본 형태	지도 형태
1	海左全圖	古軸915.51-H118	서울대	98*59.2	목판본	두루마리(卷)
2	海左全圖	古軸 4709-72	서울대	97.4*57	목판본	두루마리(卷)
3	海左全圖	古軸 4709-100	서울대	97.7*55.7	목판본	두루마리(卷)
4	海左全圖	성신 41	성신여대	96.6*55.6	목판본	족자
5	海左全圖	성신 42	성신여대	98.6*56.3	목판본	족자
6	海左全圖	성신 46	성신여대	107*56	필사본	족자
7	海左全圖	성신 89	성신여대	98.4*56.1	목판본	족자
8	海左全圖	영남대 10262	영남대	97*56.2	목판본	두루마리(卷)
9	海左全圖	영남대 10151	영남대	97*56	목판본	한 장
10	海左全圖	혜정 204	경희대	97.4*55.6	목판본	두루마리(卷)
11	海左全圖	혜정 307	경희대	99.3*56.1	목판본	한 장
12	海左全圖	서 13155	역사	98*56.8	목판본	한 장
13	海左全圖	서 13154	역사		목판본	한 장
14	海左全圖	서 2630	역사	97.4*55.8	목판본	한 장
15	海左全圖	한古朝 61-74	중도	95*54.6	목판본	한 장
16	海左全圖	한古朝 61-22	중도	157*94	필사본	한 장
17	海左全圖	204-5210	숭실대	97.9*55.9	목판본	두루마리(卷)

- 주) 1) 지도명 앞에 일련번호를 사용한 것은 지도명이 모두 같기 때문에 판 유형을 분리하고 분석하는데 지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지도의 분류번호 대신에 일련번호인 (예) 규장각 소장(古軸912-51-H118) 《海左全圖》 → 《海左全圖(1)》로 표시하기로 한다.
- 2) 규격은 종이 전체 크기가 아닌 지도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그 안쪽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 3) 소장처의 경우, 서울대 규장각을 ‘서울대’로 줄여서 표시했다. 따라서 성신여대는 성신여대 박물관, 영남대는 영남대 박물관, 경희대는 경희대 혜정박물관, 역사는 서울역사박물관, 중도는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숭실대는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을 표시한 것이다.
- 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海左全圖》(서 2630)는 현재 전시중으로, 지도의 정확한 크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각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는 (가) 유형은 지도가 전체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판이 평안도의 渭原 바로 윗부분에서 나뉘지고(그림 13), 두 번째 판은 평안도의 龍岡에서 나뉘진다(그림 14). 그리고 세 번째 판과 네 번째 판의 경계는 충청도의 庇仁 부근(그림 15)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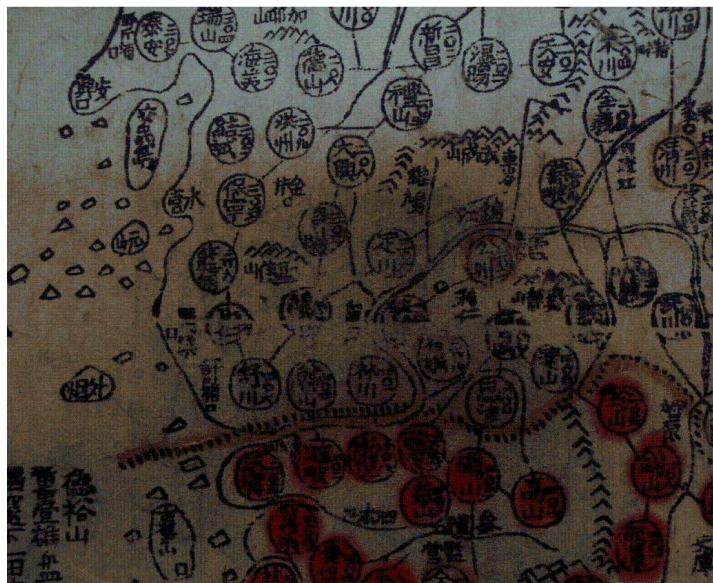


[그림 13] 《海左全圖(8)》(上)과
《海左全圖(5)》(下) 평안도의 渭原 부분



[그림 14] 《海左全圖(8)》의 판 나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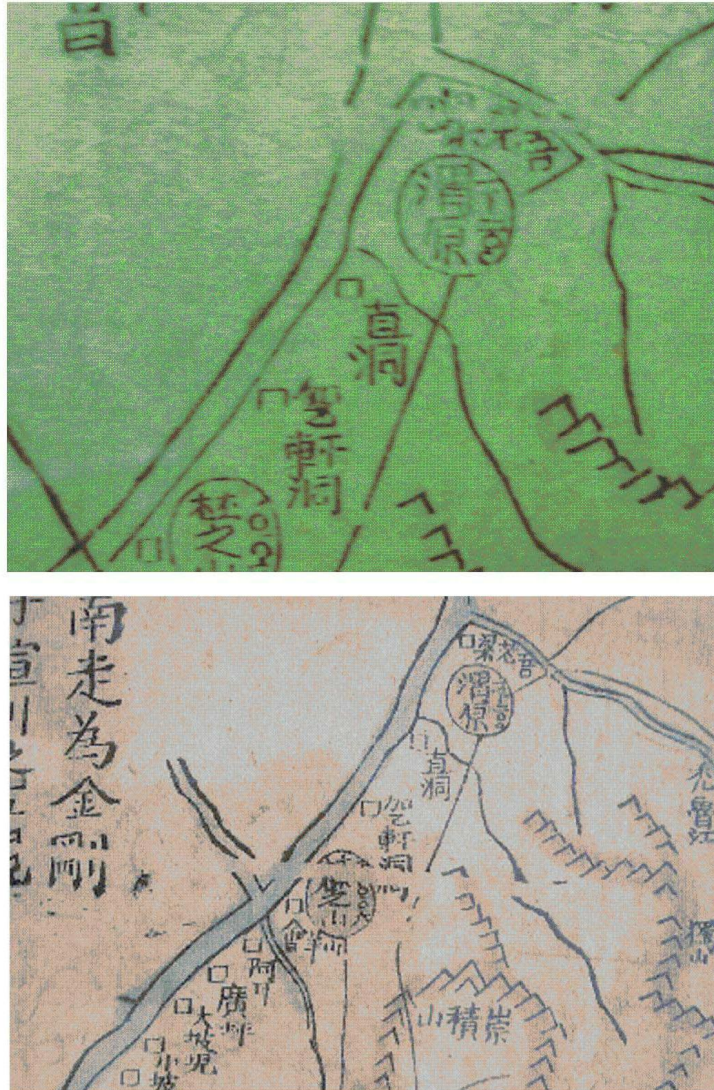
주) (가) 유형의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 나뉼이 보이는 평안도 龍岡 부근이다.



[그림 15] 《海左全圖(8)》의 판 나뉼

주) (가) 유형의 세 번째 판과 네 번째 판 나뉼이 보이는 충청도 庇仁 부근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판이 나뉘는 것은 《海左全圖(1)》, 《海左全圖(5)》, 《海左全圖(7)》, 《海左全圖(8)》, 《海左全圖(12)》, 《海左全圖(14)》, 《海左全圖(15)》, 《海左全圖(17)》로 (가) 유형에 속한다.



[그림 16] (가) 유형과 (나) 유형의 첫 번째 판 나뉘는 비교⁶⁸⁾

(나) 유형 역시 (가) 유형과 같이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판이 나뉘지
 68) 위의 지도는 (가) 유형은 《海左全圖(5)》이고, 아래 지도는 (나) 유형은 《海左全圖(4)》이다.

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판이 평안도 楚山에서 나뉘지고(그림 16), 두 번째 판은 황해도의 豊川과 長淵 사이에서 나뉘진다. 그리고 마지막 판과의 구분은 전라도 金堤 부근으로全州 바로 윗부분에서 나뉘진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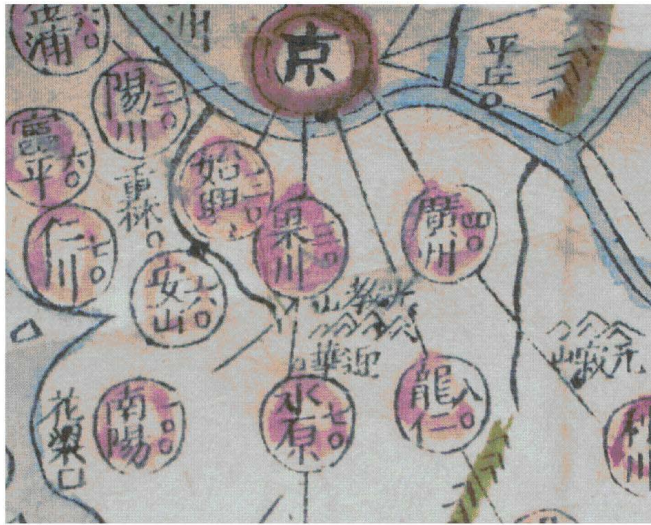


[그림 17] (나) 유형과 (다) 유형의 마지막 판 나뉘 부분⁶⁹⁾

69) 위 지도는 (나) 유형의 《海左全圖(3)》이고, 아래 지도는 (다) 유형의 《海左全圖(2)》로 모두 전라도 김제, 만경 부분이다.

(나) 유형에는 《海左全圖(3)》, 《海左全圖(4)》, 《海左全圖(9)》, 《海左全圖(10)》, 《海左全圖(11)》, 그리고 《海左全圖(13)》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 유형은 5개의 판으로 이루어진 《海左全圖(2)》이다. (다) 유형의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나뉘지는 부분은 (나) 유형과 같다. 그러나 (나) 유형의 두 번째 판이 (다) 유형에서는 경기도 南陽, 水原 아래에서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림 18] (나) 유형과 (다) 유형의 경기도 부분⁷⁰⁾

70) 위 지도는 (나) 유형의 《海左全圖(3)》이고, 아래 지도는 (다) 유형의 《海左全圖(2)》이다.

판의 구분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海左全圖》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15장의 지도 중《海左全圖(1)》, 《海左全圖(5)》, 《海左全圖(7)》, 《海左全圖(8)》, 《海左全圖(12)》, 《海左全圖(14)》, 《海左全圖(15)》, 《海左全圖(17)》가 (가)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海左全圖(3)》, 《海左全圖(4)》, 《海左全圖(9)》, 《海左全圖(10)》, 《海左全圖(11)》, 《海左全圖(13)》는 (나) 유형에 속하고, 《海左全圖(2)》는 (다) 유형에 속한다. 연구에 사용한 14장의 《海左全圖》중 (가) 유형이 7장으로 가장 많으며, 각 유형의 판 나뉘는 [표 4]와 같다.

[표 4] 판 유형에 따른 《海左全圖》 유형과 판 나뉘

유형	지도	제1판	제2판	제3판	제4판	제5판
(가) 유형	《海左全圖(1)》	지도 상단부터 渭原(平) 까지	渭原(平) 부터 龍岡(平) 까지	龍岡(平) 부터 庇仁(忠) 까지	庇仁(忠) 부터 지도 하단까지	
	《海左全圖(5)》					
	《海左全圖(7)》					
	《海左全圖(8)》					
	《海左全圖(12)》					
	《海左全圖(14)》					
	《海左全圖(15)》					
(나) 유형	《海左全圖(3)》	지도 상단부터 楚山(平) 까지	楚山(平) 부터 豊川(黃) 까지	豊川(黃) 부터 金堤(全) 까지	金堤(全) 부터 지도 하단까지	
	《海左全圖(4)》					
	《海左全圖(9)》					
	《海左全圖(10)》					
	《海左全圖(11)》					
	《海左全圖(13)》					
(다) 유형	《海左全圖(2)》	지도 상단부터 楚山(平) 까지	楚山(平) 부터 豊川(黃) 까지	豊川(黃) 부터 南陽(京) 까지	南陽(京) 부터 金堤(全) 까지	金堤(全) 부터 지도 하단까지

주) ‘(平), (黃), (京), (全)’는 8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안도·황해도·경기도·전라도를 뜻한다.

2. 판 유형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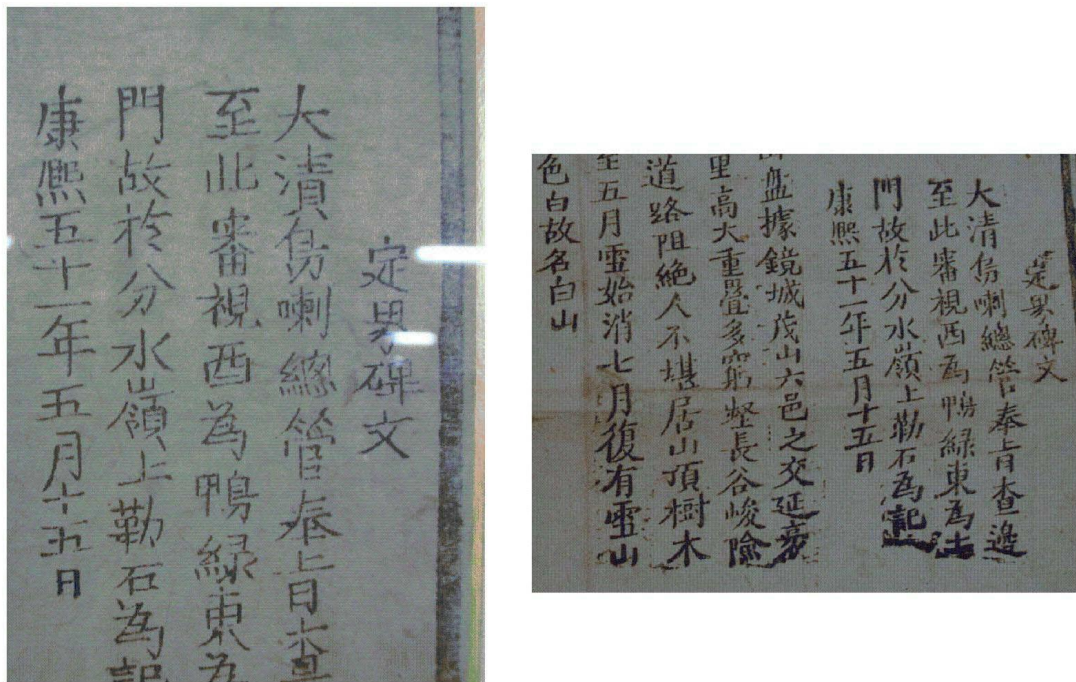
판의 나뉠에 따라 세 종류의 판이 검출되었다. 판본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海左全圖》의 경우 전체적인 정보 전달 모습은 비슷하나, 각 유형마다 정보 내용면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에 세 종류의 판본 내용을 비교해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誤字를 바로 잡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正자가 誤字로 바뀐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글자 이외에 하천의 모습이나 섬의 모양이 다르며, 섬이 지도에 반영된 정도 또한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해 註記 부분·지도에 나타난 표현·지도 내 誤字·섬과 관련해 비교했다.

1) 註記 부분

《海左全圖》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註記는 지도 가운데 전도 부분을 제외한 좌측과 우측, 그리고 아래쪽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 전도의 오른쪽에는 백두산·장백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팔공산·가야산의 위치, 크기, 경관 등이 표시되어 있고, 울릉도와 우산국에 관한 역사적 내용과 함경도의 행정 구역에 관한 역사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쪽 여백에는 울릉도와 제주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말·소·돼지·노루 등과 같은 제주도의 특산물을 ‘濟州土産’으로 따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의 왼쪽에는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과 4군 6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구월산·덕적도·수양산·멸악산·속리산·계룡산·변산·지리산 등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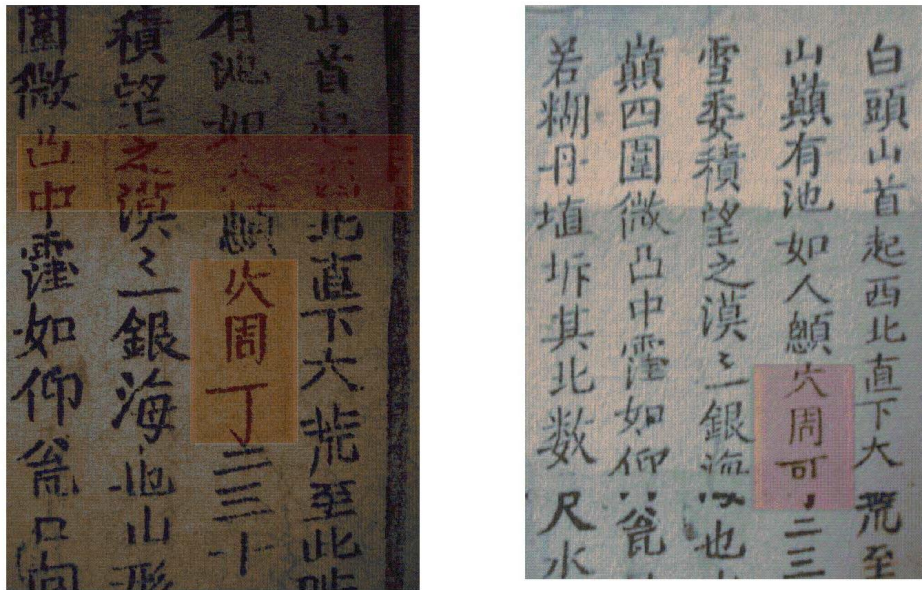
《海左全圖》의 경우 지도와 주기가 따로 판각된 것이 아니라 같은 판에 판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바뀐 부분은 없지만, 각 유형에 따라 주

기의 글자체와 글자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白頭山定界碑 첫 부분의 ‘大清’과 ‘大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大清’을 ‘大潰’로 誤刻한 것으로 (가) 유형의 모든 지도에는 ‘大潰’로 되어 있고, (나)와 (다) 유형에서는 ‘大清’으로 되어 있다(그림 19). 그리고 (가) 유형의 白頭山 주기 부분 중 大池에 관한 내용을 보면 ‘穴’자가 오히려 ‘矢’자처럼 보이며, ‘可’의 경우에는 口가 누락되어 있다. 특히 ‘可’의 경우 (가) 유형의 모든 지도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짚어내면서 나타난 誤字가 아니고 판각할 때의 실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20).



[그림 19] 白頭山定界碑 註記 중 ‘大清’ 부분71)

71) 왼쪽은 (가) 유형으로 《海左全圖(7)》이며, 오른쪽은 ‘大清’이라고 바르게 판각된 (나) 유형으로 《海左全圖(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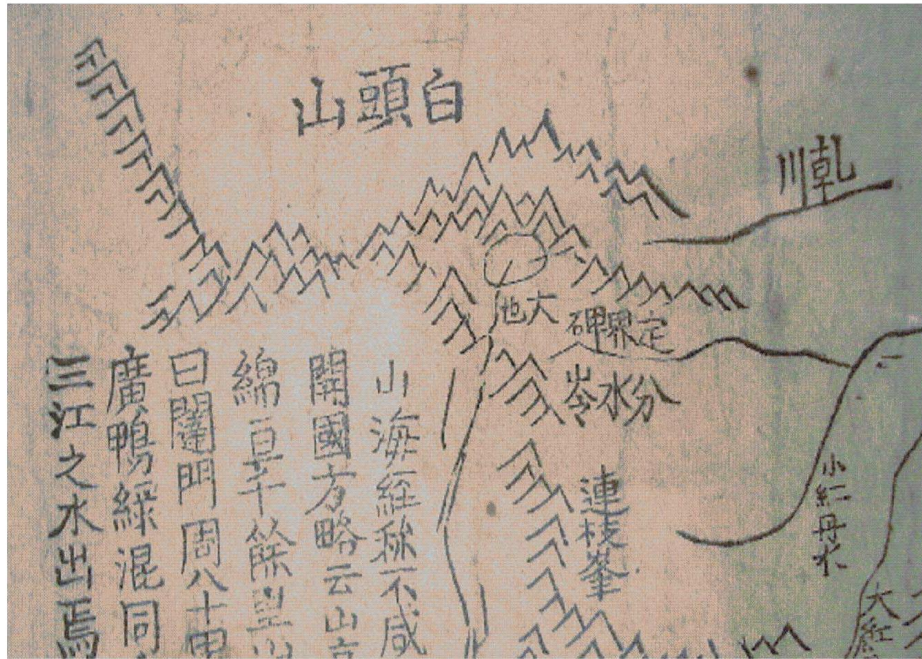
[그림 20] 白頭山 註記 중 ‘穴’과 ‘可’의 오기 부분⁷²⁾

2) 지도상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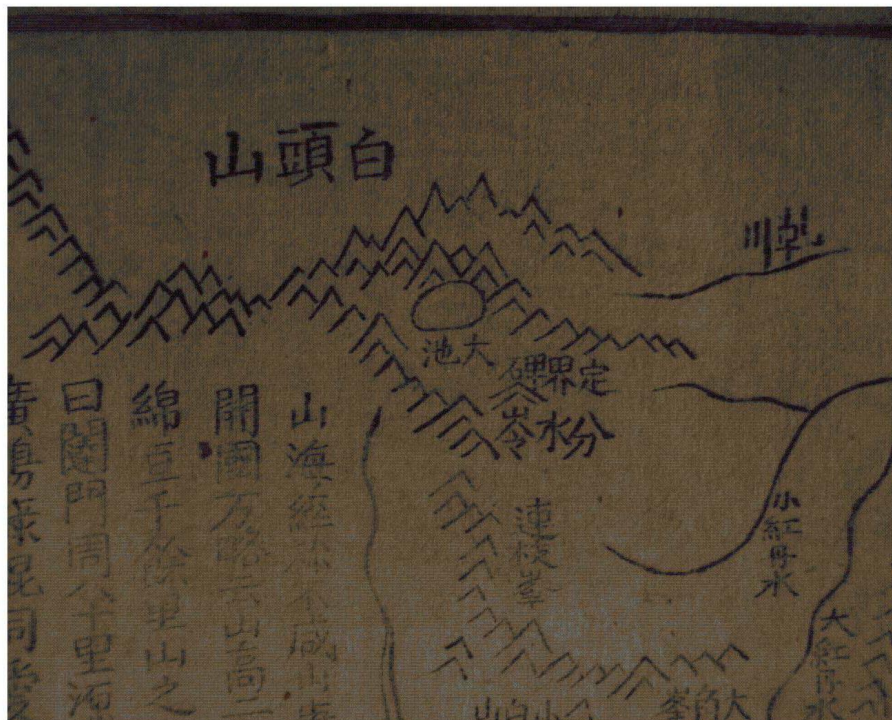
지도상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란 하천의 모습, 또는 섬의 모양이나 추가, 그리고 정보의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백두산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 유형의 지도 경우 大池에서 흘러나오는 두 방향의 하천이 분명하게 보이며, 이로 인해 ‘大池’라고 표기된 부분 중 ‘池’ 글자의 ‘氵’이 보이지 않는다(그림 21). 하지만 (나)와 (다) 유형에서는 ‘大池’라는 字가 확실하게 보이며(그림 22), 오히려 大池에서 하천이 흘러나오는 부분을 판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定界碑와 分水峯 사이에 흐르는 하천의 유로까지도 표현하고 있다(그림 21).

72) 왼쪽은 (가) 유형의 《海左全圖(9)》이고, 오른쪽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3)》이다. 두 지도에서 ‘穴’과 ‘可’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판이 나뉘는 위치가 다르므로 (나) 유형 ‘可’ 글자가 판의 구분에 따라 같이 나뉘지고 있지만, (가) 유형에서는 그 보다 위에서 판이 나뉘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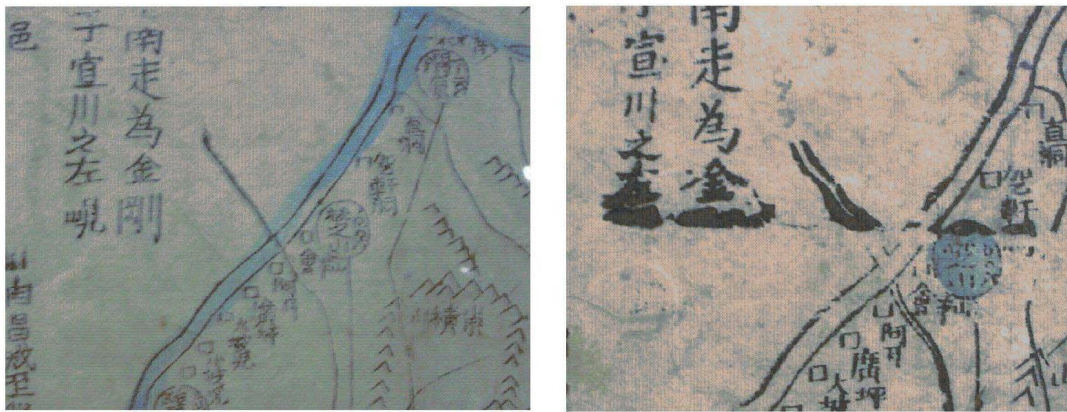


[그림 21] (가) 유형 - 《海左全圖(5)》의 백두산 부분



[그림 22] (나) 유형 - 《海左全圖(4)》의 백두산 부분

또 다른 하천의 표현은 함경도 長津 부근과 평안도 楚山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 23). 楚山 부근 압록강 본류에서 발원해 만주 쪽으로 흘러나가는 압록강 지류가 (가) 유형에서는 단선으로 그려졌으나, (나) 유형에서는 쌍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가) 유형과 (나) 유형의 평안도 楚山 부분⁷³⁾

하천 모습 이외에도 산의 모습, 또는 도의 경계선 표현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림 24]를 보면, 같은 지역의 산 모습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유형의 경우에는 산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했을 때, 오른쪽 부분이 왼쪽 부분과 달리 사선이 휘어져서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나) 유형의 산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 모두 휘어짐 없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도를 나누는 경계선 또한 (가) 유형은 점의 크기가 길게 표시되어 있지만, (나) 유형은 (가) 유형에 비해 짧게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나) 유형의 모든 지도에 나타나 있는 ‘河山峯’이라는 글자 중 ‘峯’자가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깨져서 보이지 않는다(그림 24).

73) 왼쪽은 (가) 유형의 <海左全圖(7)>이고, 오른쪽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2)>이다.



[그림 24] (가) 유형과 (나) 유형의 河山峯 부분 비교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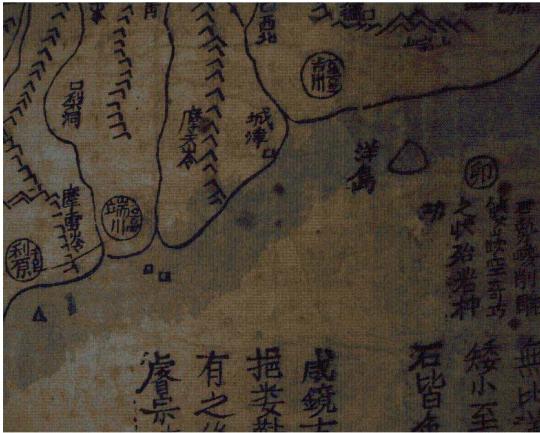
74) 위의 지도는 (가) 유형의 《海左全圖(5)》이고, 아래 지도는 (나) 유형의 《海左全圖(4)》이다.

섬 모양도 지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함경도부터 살펴보면, 吉州의 洋島는 (가) 유형과 (나), (다) 유형의 모습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5). 각 유형의 지도에서 洋島의 오른쪽 윗부분을 비교해 보면, (가) 유형의 경우 들어가거나 나온 부분이 없는 곡선 모습이며, 밑부분은 거의 직선이다. 그러나 (나) 유형의 지도에 나타나 있는 洋島의 오른쪽 윗부분을 보면 (가) 유형과 달리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밑 부분 역시 직선 보다는 곡선에 가까워 왼쪽 부분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한만 부근에는 (가) 유형의 지도에서 안 보이던 섬이 (나)와 (다) 유형에서 보인다(그림 26). 그리고 그 모습 또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 유형은 四納島 주변에 네 개의 섬이 있지만, (나)와 (다) 유형의 지도를 보면, (가) 유형의 네 개의 섬 중 두 번째 섬 위에 섬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가) 유형의 경우 四納島 바로 위의 섬 모양은 작은 직사각형이며, 四納島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은 거의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와 (다) 유형에 보이는 섬 모양을 보면, 우선 四納島 바로 위에 섬은 (가) 유형의 섬보다 크기도 크며, 직사각형 보다는 밑변이 긴 사각형 모습에 가깝다. 그리고 四納島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떨어진 섬 모양의 경우 (나) 유형은 삼각형이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깝고, (다) 유형의 경우에는 사각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위화도가 있는 평안도 義州 부분의 섬 모양도 (가) 유형과 다른 유형이 조금 다르다(그림 27). 義州 바로 위쪽에 있는 북쪽 첫 번째 섬과 두 번째 섬 모양을 보면, (가) 유형의 경우 두 섬의 끝이 서로 거의 맞닿아 있다. 그러나 (나) 유형의 지도를 보면 두 섬이 떨어져 그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김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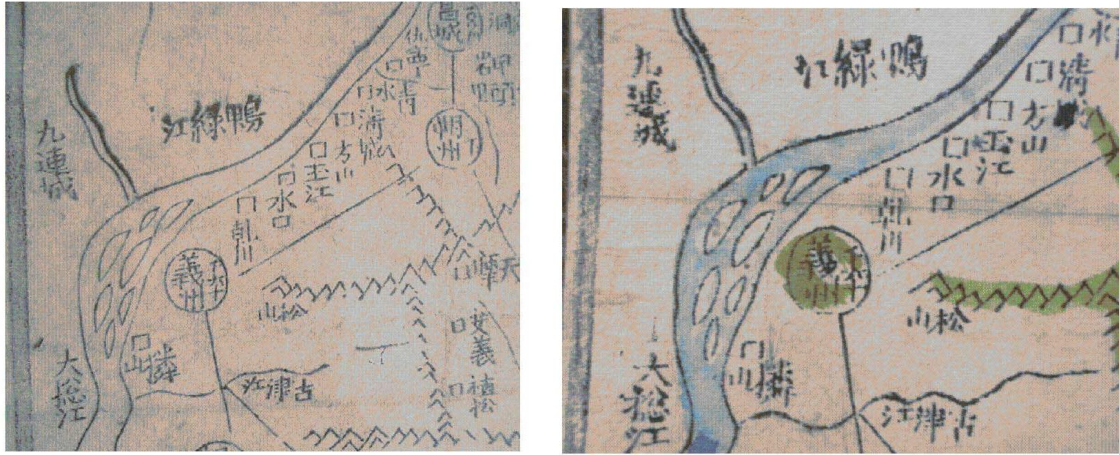
[그림 25] 함경도 洋島의 모양 비교⁷⁵⁾



(가) - 《海左全圖(9)》 (나) - 《海左全圖(4)》 (다) - 《海左全圖(2)》

[그림 26] 각 유형별 함경도 부분의 섬 모양 비교

75) 왼쪽은 (가) 유형의 《海左全圖(12)》이고, 오른쪽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8)》이다.



[그림 27] (가) 유형과 (나) 유형의 평안도 義州 부분⁷⁶⁾

[그림 27]을 보면 古津江의 모습 또한 (가) 유형과 (나) 유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가) 유형에서의 古津江 모습은 세 번의 굴곡이 보이고 강의 일부분이 끊어져 있다. 반면, (나) 유형의 지도에서의 古津江은 네 번의 굴곡이 보인다. 특히 두 유형의 ‘江’ 윗부분을 비교하면 (가) 유형의 경우 약간의 굴곡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완만한 모습이지만, (나) 유형의 경우에는 큰 굴곡은 아니지만 확실한 굴곡 모습이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평안도 成川 바로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川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서한만 부분도 동한만 부근과 유사하게 (가) 유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섬 하나가 (나) 유형과 (다) 유형에는 추가되었다(그림 28). 永柔 바로 서쪽 해안을 보면 (가) 유형의 지도에는 두개의 섬이 있지만, (나)와 (다) 유형의 지도에는 두개의 섬 위로 작은 섬 하나가 더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 유형에 보이는 두 개의 섬은 모두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지만, (나)와 (다) 유형의 지도를 보면, 새로 추가된 섬 밑에 섬은 사각형에 가깝고

76) 왼쪽의 (가) 유형은 《海左全圖(5)》이고, 오른쪽의 (나) 유형은 《海左全圖(3)》이다.

그 밑에 섬은 원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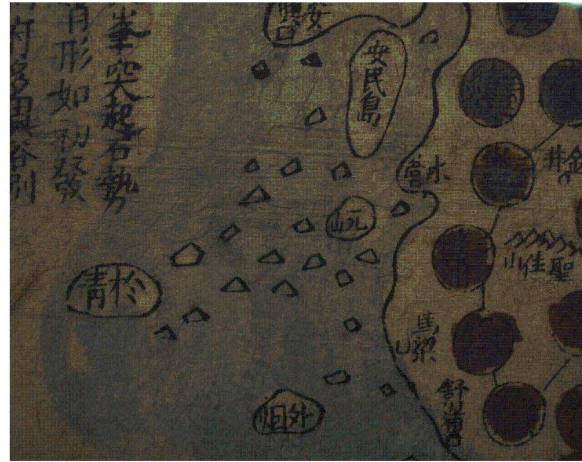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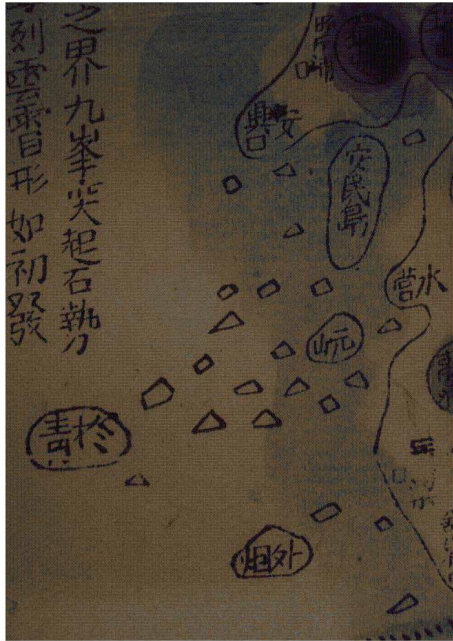


[그림 28] (가) 유형과 (나) 유형의 평안도 부분 섬 비교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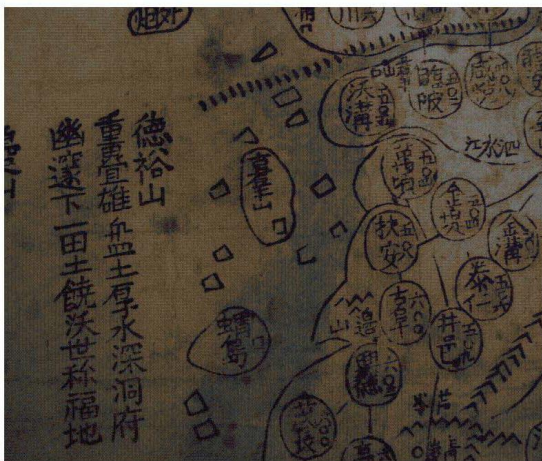
섬의 표시 내용에서의 차이는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충청도 於淸島 주변을 보면(그림 29),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元山島의 山자 바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於淸島의 於자 바로 밑 부분까지 2개의 섬이 있다. 하지만 (나)와 (다) 유형의 지도에는 於자 바로 밑에 있는 네 번째 섬과 두 번째 섬 사이의 공간에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섬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馬梁鎭 근처의 서북쪽 해안에도 (나) 유형에는 표시되어 있는 섬이 (가) 유형에는 없다.

그리고 (나)와 (다)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전라도 蝸島 옆에 표시되어 있는 작은 사각형 섬 역시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그림 30). 그리고 이 부분의 해안선을 보면,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뽕족해서 마치 새 머리의 측면 모습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나) 유형과 (다) 유형 지도의 해안선 모습은 거의 둥근 곡선 모습에 가깝다.

77) 왼쪽의 (가) 유형은 <海左全圖(15)>이고, 오른쪽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3)>으로 섬 하나가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 (가) 유형과 (나) 유형의 충청도 부분 섬 비교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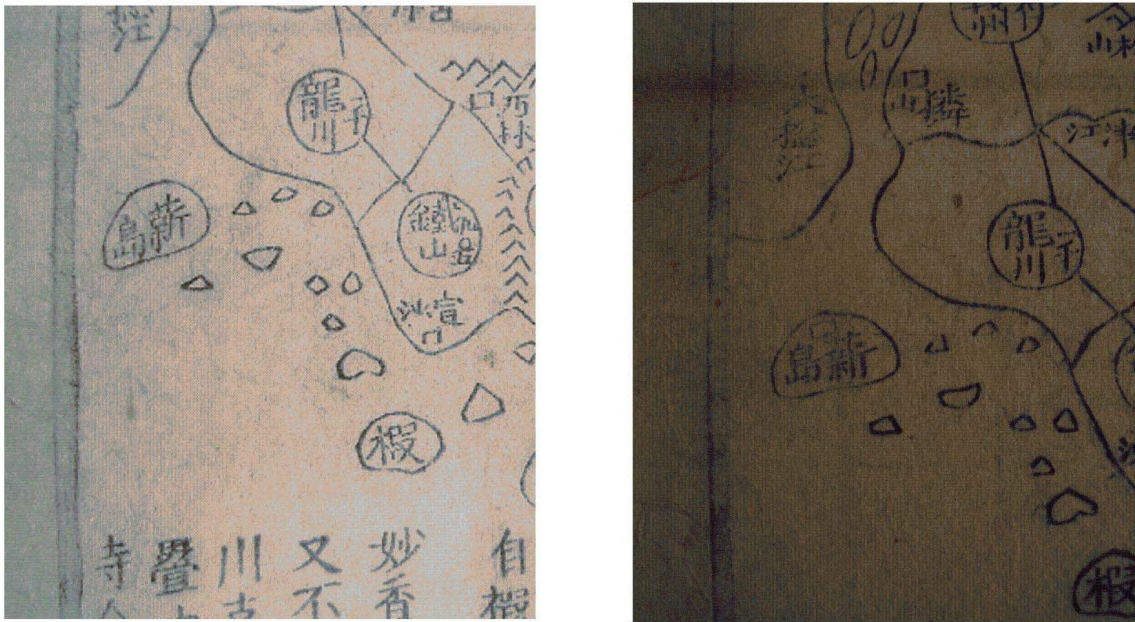


[그림 30] (가) 유형과 (나) 유형의 전라도 부분 섬 비교79)

78) 왼쪽의 (가) 유형은 《海左全圖(14)》이고, 오른쪽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4)》이다.

79) 왼쪽은 《海左全圖(12)》의 (가) 유형이며, 오른쪽은《海左全圖(2)》의 (나) 유형이다.

섬이 추가된 것 이외에 다른 정보가 추가된 경우도 있다. 그것은 평안도 부분 중 군사와 관련된 정보이다. (가) 유형의 薪島에는 鎭堡 표시인 작은 사각형이 없지만 (나)와 (다) 유형에서는 진보를 나타내는 작은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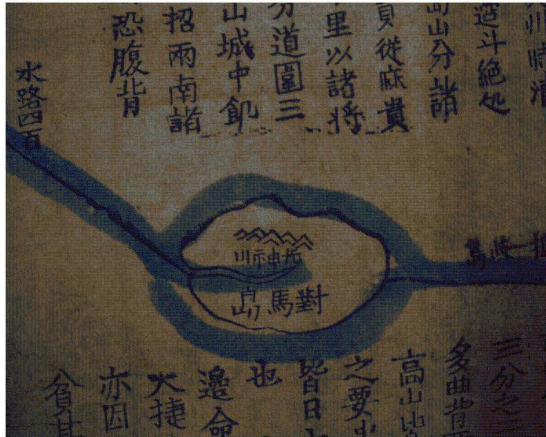


[그림 31] 평안도 薪島의 진보 표시 有無 비교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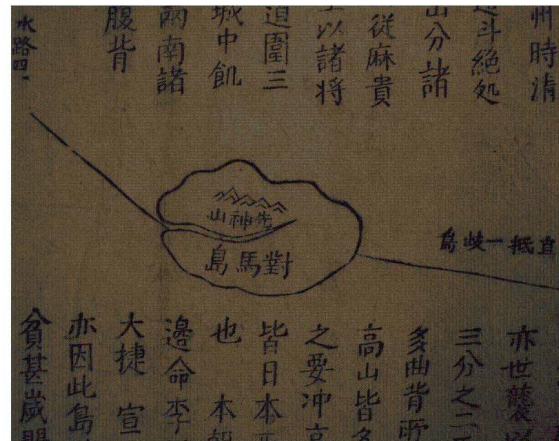
그리고 對馬島의 경우 하천의 모습이 각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 유형의 지도에서 하천은 對馬島의 先神山 '先'자 바로 밑 부분까지, 對馬島의 '對'자 중간 부분까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 유형의 지도를 보면 하천이 先神山의 '先'자를 지나 산(△)이 끝나는 부분까지 길게 표시되어 있으며, 對馬島에서 우측으로 시작되는 수로 표시선을 보면, (가) 유형은 거의 평행인데 반해 (나) 유형의 경우에는 우측으로 기울어져 각도가 생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 유형의 지도를 보면 '先'자 바로 밑에서 두 줄로

80) 왼쪽의 (가) 유형은《海左全圖(5)》이고, 오른쪽의 (나) 유형은 《海左全圖(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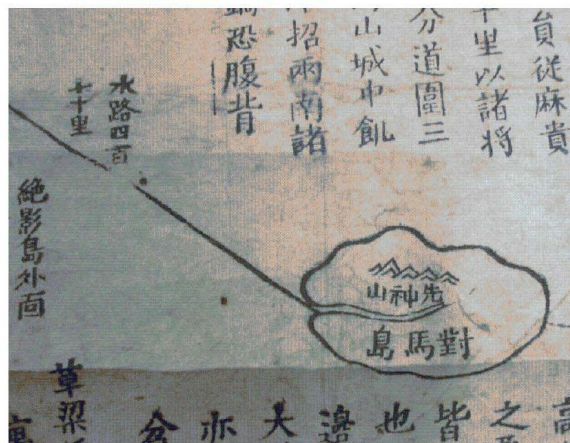
된 하천이 끊기고, 하천이 끊어진 밑 부분에는 한 줄의 선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은 산(八)이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



(가) 유형의 《海左全圖(15)》



(나) 유형의 《海左全圖(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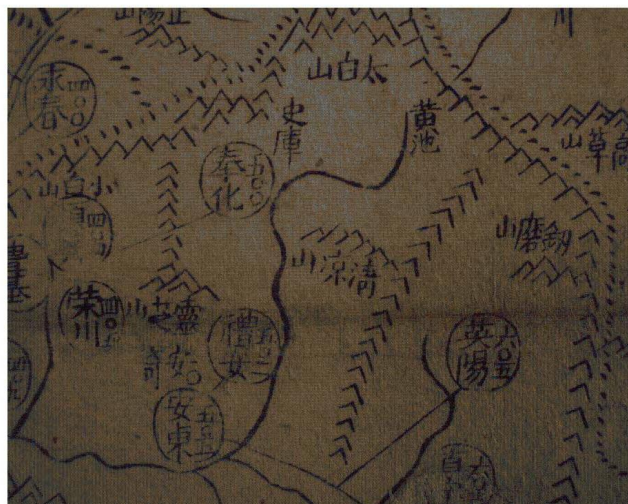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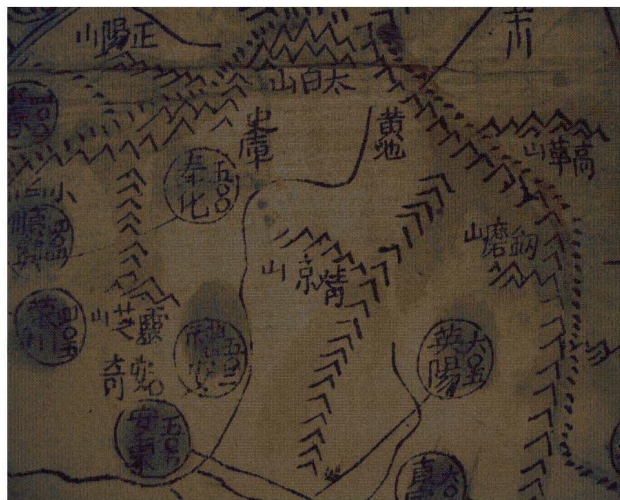
(다) 유형의 《海左全圖(2)》

[그림 32] 각 유형별 對馬島의 하천 형태 비교

3) 지도상의 誤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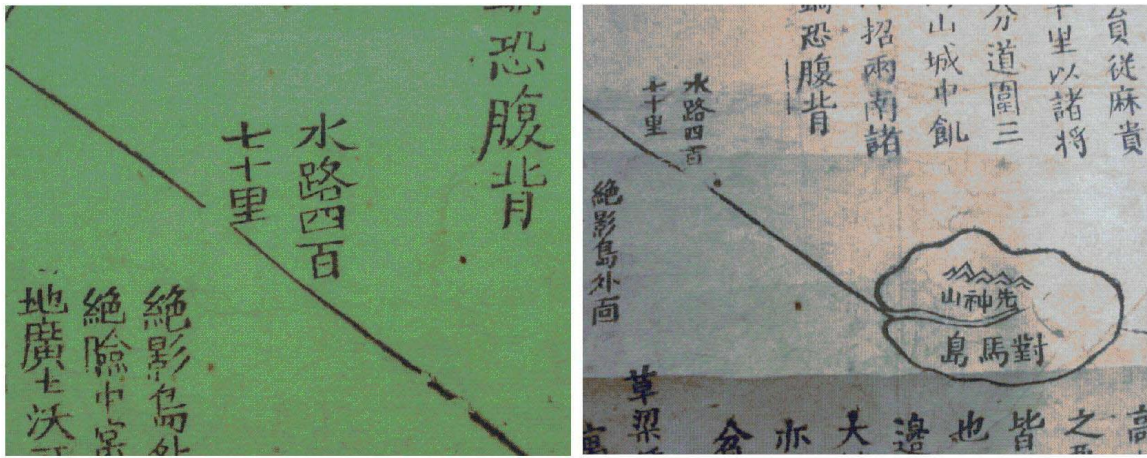
‘白頭山定界碑文’의 誤字 이외에 지도의 다른 부분에서도 誤字가 보인다. 우

선 (가) 유형의 지도에는 경상도의 淸涼山이 모두 淸京山으로 잘못 나타나 있지만, (나)와 (다) 유형에서는 바로 잡았다(그림 33). 이와는 반대로 (가)와 (다) 유형에서는 대마도까지의 거리 표시 부분에 ‘水路四百七十里’라는 글자와 水路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만, (나) 유형의 경우 ‘百’이라는 글자와 그 밑 부분의 수로가 끊어져 있다(그림 34, 그림 35). 하지만 경상도의 金山은 모든 유형에서 金川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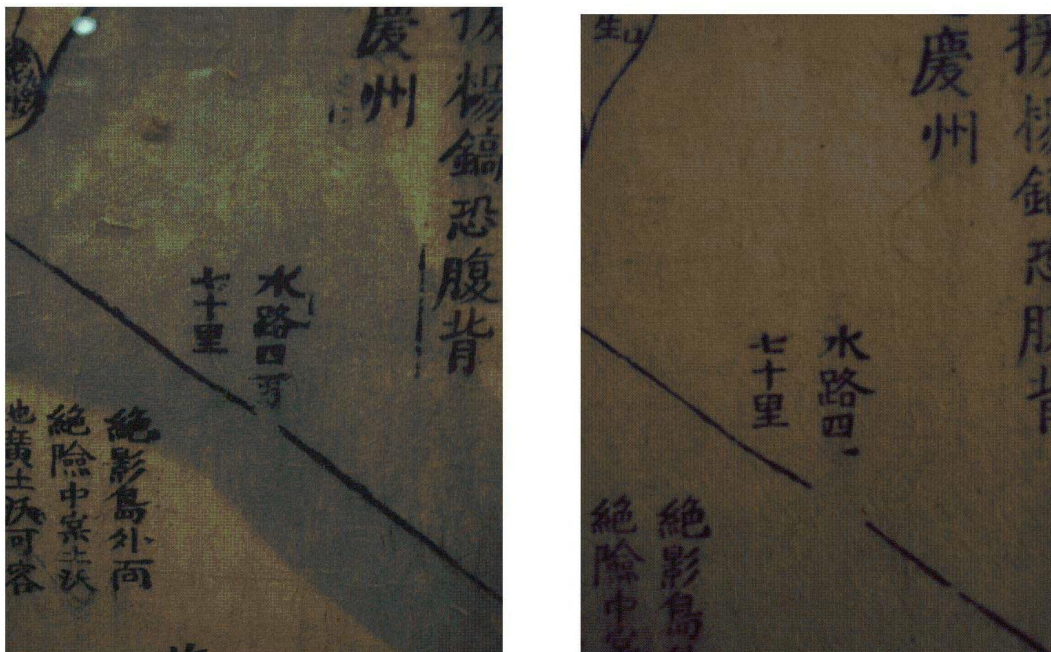


[그림 33] (가) 유형 지도의 淸涼山 誤字와 (나) 유형의 正字⁸¹⁾

81) 위 지도는 《海左全圖(14)》로 (가) 유형의 지도이며, 아래 지도는 (나) 유형의 《海左全圖(9)》이다.



[그림 34] (가) 유형과 (다) 유형에 보이는 對馬島까지의 水路 82)



[그림 35] (나) 유형 지도에서의 對馬島까지의 水路83)

82) 왼쪽은 (가) 유형의 《海左全圖(5)》이고, 오른쪽은 (다) 유형의 《海左全圖(2)》이다.

83) 왼쪽은 《海左全圖(4)》이고, 오른쪽은 《海左全圖(9)》이다.

판 유형에 따라 지금까지 분석한 차이점을 종합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각 유형별 차이점 비교

		(가) 유형	(나) 유형	(다) 유형
판 수		4	4	5
註記	定界碑文 穴 可	大漬(誤字) 矢 丁	大清(正字) 穴 可	大清(正字) 穴 可
하천	白頭山 大池 부분 分水峯 윗 부분(咸) 楚山 부근(平)	○ ○ 단선	× × 쌍선	× × 쌍선
모습	古津江(平) 對馬島	○ ○	× ×	× △
島	洋島(咸) 高原부근(咸) 현 위화도 부근(平) 永柔 부근(平) 於清島 부근(忠) 馬梁鎭 부근(忠) 蝸島 부근(全)	○ ○ ○ ○ ○ ○ ○	× ×(島 추가) × ×(島 추가) ×(島 추가) ×(島 추가) ×(島 추가)	× ×(島 추가) × ×(島 추가) ×(島 추가) ×(島 추가) ×(島 추가)
정보	薪島(平)의 鎭堡 표시 有無	無	有	有
誤字	淸涼山(慶) 대마도까지 수로 ‘百’	淸京山(誤) 有	淸涼山(正) 無	淸涼山(正) 有

주) 1) 지도상의 표현된 모습을 간략하게 비교하기 위해 (가) 유형을 기준으로 (가) 유형의 지도 모습을 ‘○’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로 구분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또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로 구분했다.

2) ‘分水峯 윗 부분(咸)’에서 (咸)은 8도명의 咸鏡島를 나타내는 것으로, 平安島 →(平), 忠淸島 →(忠), 慶尙道 →(慶), 全羅道 →(全)로 표시한다.

[표 5]를 살펴보면, (가) 유형이 가장 먼저 파악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가) 유형에서 보이는 註記 부분의 誤字와 지도상의 誤字를 (나)와 (다) 유형에서는 바로 잡았고, 정보 추가 면에서 (가) 유형에 나타나 있

지 않은 함경도의 薪島鎭 표시가 (나)와 (다) 유형에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제작된 비슷한 크기의 지도와 비교했을 때, 《海左全圖》는 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나)와 (다) 유형에는 (가) 유형에 없었던 섬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후에 만들어진 판에 이미 반영된 섬을 삭제하고 제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가) 유형의 판이 가장 먼저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각 유형별 특징

1) (가) 유형의 지도

우선 (가) 유형에 속하는 지도들을 구분하여, 판 별로 그 크기⁸⁴⁾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가) 유형 《海左全圖》의 판 크기

지도명	전체크기(cm)	1판(cm)	2판(cm)	3판(cm)	4판(cm)	제명크기(cm)
《海左全圖(1)》	98*59.2	17.3	24.5	26.4	29.4	6*31.6
《海左全圖(5)》	98.6*56.3	17.4	24.8	26.6	29.5	6*31.8
《海左全圖(7)》	98.4*56.1	17.3	24.4	26.5	29.5	6*31.9
《海左全圖(8)》	97*56.2	17.3	24.2	26.2	29.4	6*31.9
《海左全圖(12)》	98*56.8	17.3	24.4	26.7	29.4	6*31.8
《海左全圖(14)》	97.4*55.8	17.3	24.3	26.5	29.4	6*31.7
《海左全圖(15)》	95*54.6	17.1	23.2	26.4	28.4	6*31.4
《海左全圖(17)》	97.9*55.9	17.1	23.9	26.8	28.9	6*31.9

주) 1) 크기의 경우 모두 평균값이므로, 각 판의 길이 합이 전체크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제명크기’는 《海左全圖》의 지도 이름을 둘러싼 사각형의 크기를 측정했다.

84) 각 판의 크기는 지도상에서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5곳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지도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지도의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처음 판과 마지막 판보다 중간 부분의 두 판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판을 찍어낼 때 종이가 밀려서, 또는 각 판의 이음 부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 유형의 경우 각각의 지도 차이점은 거의 없다. 다만 木版本 地圖이기 때문에 인쇄시의 기술과 상황, 그리고 판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목판이 마모되어 해안선·섬의 윤곽선·또는 字의 획 굵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림 36]과 같이 이를 통해 地圖의 전후관계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림 36] (가) 유형의 함경도 부분⁸⁵⁾

현재의 지도 상태로 보았을 때 《海左全圖(1)》이 가장 먼저 찍어낸 지도로 보이며, 《海左全圖(14)》 → 《海左全圖(5)》 → 《海左全圖(7)》 → 《海左全圖(17)》 → 《海左全圖(8)》 → 《海左全圖(12)》 → 《海左全圖(15)》 순서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관상태·종이의 지질 및 수준에 따라, 또는 당시 판을

85) 왼쪽은 《海左全圖(14)》이며, 오른쪽은 《海左全圖(3)》이다.

찍어낸 기술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다 정확한 전후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앞으로 종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판각된 판으로 추정되는 (가) 유형의 경우, (나)와 (다) 유형에 비해 판각의 수준이 매우 정밀하다. 이는 판과 판 사이의 연결 부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가) 유형의 경우 판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37). 《海左全圖(1)》의 경우에는 마치 판을 만들어놓고 칼로 구분한 것과 같이 판과 판 사이에 가는 선 정도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이 지도가 그만큼의 판각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정성 들여 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37] (가) 유형의 판이 구분되는 부분⁸⁶⁾

86) 왼쪽은 《海左全圖(1)》의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이 나뉘는 평안도 위원 부분이며, 오른쪽은 《海左全圖(14)》의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이 나뉘는 함경도 安邊 부분이다.

2) (나) 유형의 지도

(나) 유형에 속하는 지도들의 각 판 크기⁸⁷⁾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나) 유형 《海左全圖》의 판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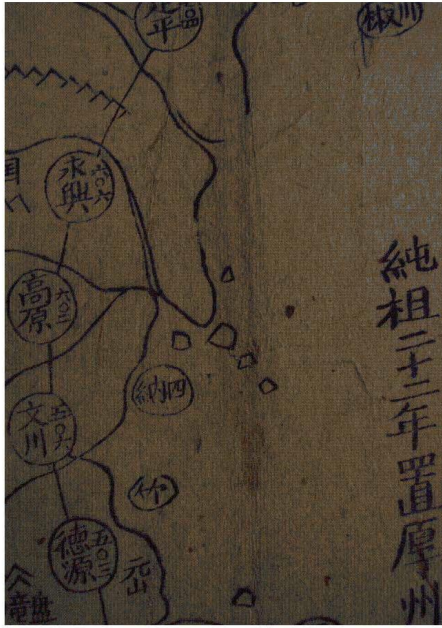
지도명	전체크기(cm)	1판(cm)	2판(cm)	3판(cm)	4판(cm)	제명크기(cm)
《海左全圖(3)》	97.7*55.7	21.6	26.2	26.1	24.5	6*31.6
《海左全圖(4)》	96.6*55.6	20.4	25.7	25.7	29.5	6*31.9
《海左全圖(9)》	97*56	20.4	26	26.2	24.5	6*31.8
《海左全圖(10)》	97.4*55.6	20.2	26.1	26.2	24.7	6*31.9
《海左全圖(11)》	99.3*56.1	21.5	26.4	26.7	24.9	6.3*40.1
《海左全圖(13)》						

주) 《海左全圖(13)》의 경우, 현재 역사박물관 기증유물전시관에서 전시중인 관계로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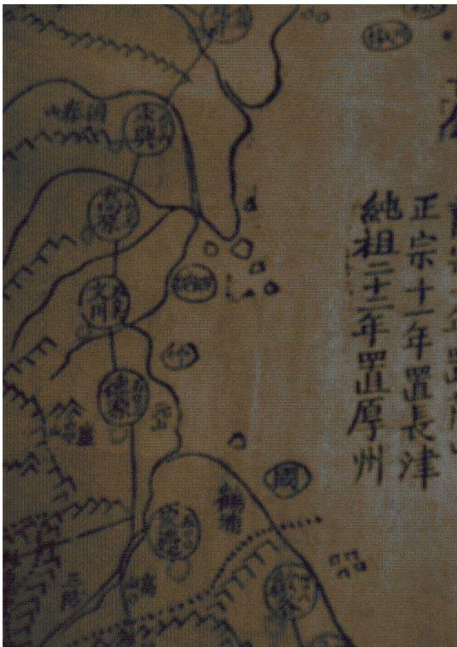
(가) 유형의 지도에서는 각각의 지도에서 큰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지만, (나) 유형의 경우에는 함경도 부분에서 섬이 추가되어 차이가 있다. 즉 《海左全圖(9)》의 경우에는 (가) 유형과의 차이점인 섬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지만(그림 38), 《海左全圖(4)》의 경우에는 그 밑으로 작은 섬 3개가 더 보인다(그림 38). 그리고 《海左全圖(10)》의 경우에는 이 부분과 利原 부분에도 섬 하나가 더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9).

《海左全圖(3)》, 《海左全圖(11)》의 경우《海左全圖(4)》와 같이 섬이 추가되지 않았다. 이처럼 (나) 유형에서의 島 추가는 지도의 전후관계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木版本 《海左全圖》가 계속해서 수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87) (나) 유형의 지도 역시 (가) 유형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5곳의 평균값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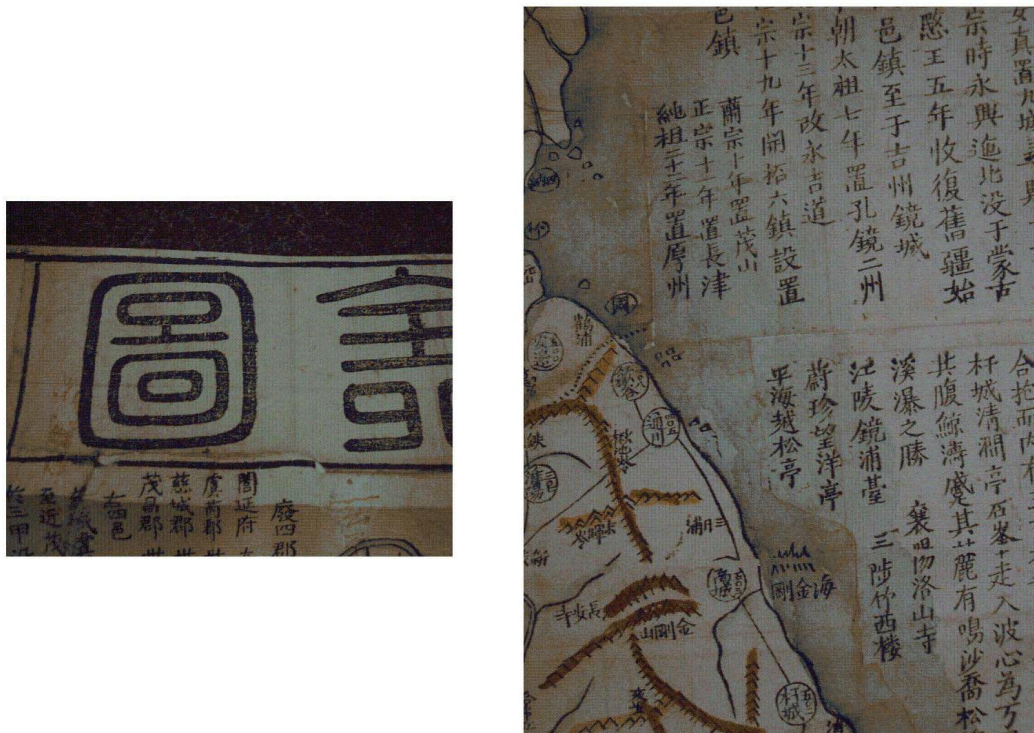


[그림 38] 《海左全圖(9)》와 《海左全圖(4)》의 함경도 부분 섬 비교



[그림 39] 《海左全圖(10)》 함경도 부분에 추가된 섬

(나) 유형에 속하는 지도 중 《海左全圖(3)》은 다른 지도와는 또 다른 특징이 보인다. 모든 지도의 註記는 지도와 같은 판에 새겨져 있다. 판이 구분되는 부분에서의 註記 글자 역시 나뉘지며, 지도와 註記 사이의 공간에서 판이 구분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海左全圖(3)》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적혀있는 檀君朝鮮부터 고려 때까지의 역사적인 주기 내용 부분과 하단의 濟州道の 주기 부분을 제외한 모든 주기 부분과 《海左全圖》라는 지도명에 첩지가 덧붙여져 있다(그림 40). 그리고 첩지가 붙여진 부분의 주기 역시 다른 지도의 주기와 내용이 모두 같다. 《海左全圖》의 경우 地圖와 註記가 같은 판에 연속해서 판각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海左全圖(3)》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0] 지도위에 첩지가 덧붙여져 있는 《海左全圖(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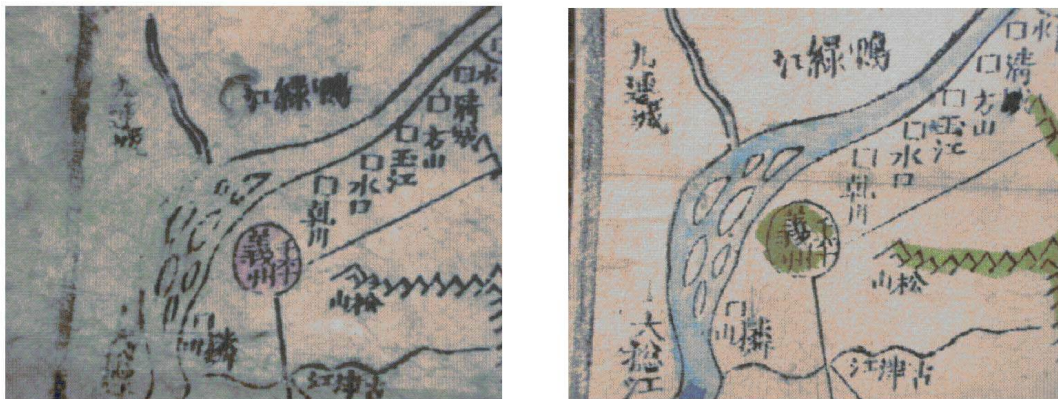
3) (다) 유형의 지도

본 연구의 대상인 15장의 목판본 《海左全圖》 중 (다) 유형에 속하는 것은 《海左全圖(2)》 1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 유형은 (가)와 (나) 유형과는 달리 5개의 판으로 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다) 유형 《海左全圖》의 판 크기

지도명	전체 크기 (cm)	1판 (cm)	2판 (cm)	3판 (cm)	4판 (cm)	5판 (cm)	제명크기 (cm)
《海左全圖(2)》	97.3*56.3	20.5	26.2	12.8	13.8	24.2	6.2*32

15장 중 1장인 (다) 유형의 경우, [표 5]와 같이 (가)와 (나) 유형과 비교해 보면 (가) 유형보다는 (나) 유형에 더 가깝다. 특히 북부지방의 경우 (나) 유형과 거의 유사함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1] (나) 유형과 (다) 유형의 현 위화도 부근 모습⁸⁸⁾

88) 왼쪽은 (다) 유형의 《海左全圖(2)》이고, 오른쪽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3)》이다.

평안도 楚山 부근의 하천의 모습이 (나) 유형과 마찬가지로 쌍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현 위화도 부근의 섬 모양과 古津江의 모습 역시 (가) 유형보다는 (나) 유형에 가까우며(그림 41). ‘河山峯’의 표현 역시 (나)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마도의 모습은 (나) 유형과 차이가 있으며(그림 33 참조), 대마도까지의 수로 표현 역시 서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판의 구분 이외에도 지도에 나타나 있는 정보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통해, (다) 유형의 지도가 (가)와 (나) 유형과는 또 다른 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유사한 (나) 유형과 (다) 유형의 선후 관계는 현존하는 《海左全圖》의 목판이 없고, (다) 유형의 경우 조사된 지도가 1장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힘들다.

4) 필사본 《海左全圖》

이 논문의 資料였던 17장의 《海左全圖》 중 2장은 《海左全圖》라는 지도명으로 된 筆寫本 地圖이다. 두 장의 지도 모두 木版本 《海左全圖》와 같은 필체로 지도명이 표기되어 있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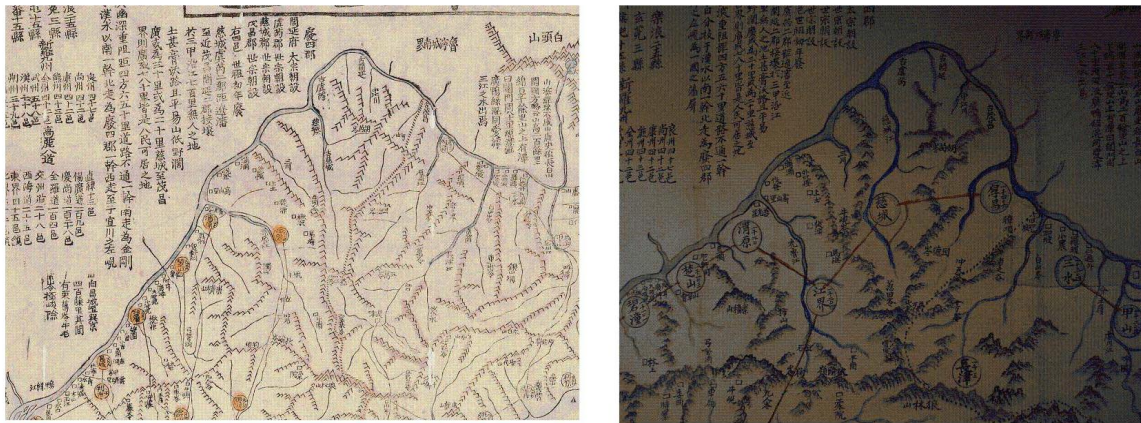


[그림 42] 筆寫本 《海左全圖》의 題名 부분⁸⁹⁾

89) 왼쪽은 《海左全圖(6)》의 모습이며, 오른쪽은 《海左全圖(16)》이다.

성신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海左全圖(6)》에 대해서는 《海左全圖》의 製作時期를 논하는 부분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듯이, 3.3cm 크기의 28*15 방안을 지도에 그리고 그 위에 그린 지도로, 木版本 《海左全圖》와 전체적인 윤곽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木版本 《海左全圖》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註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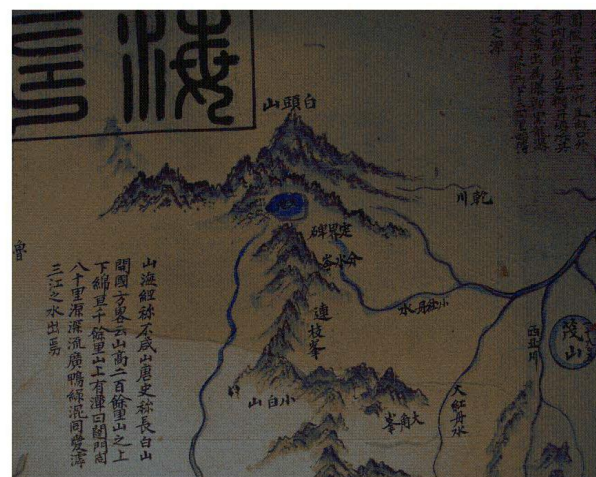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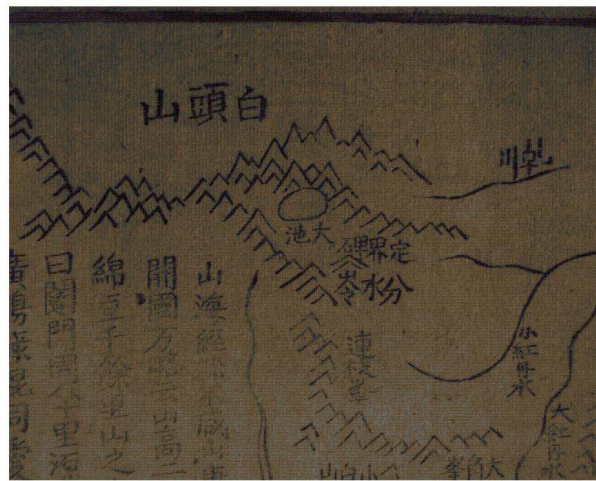
또 한 장의 筆寫本 《海左全圖》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海左全圖(16)》이다. 이 지도의 경우 《海左全圖(6)》과는 또 다른 모습의 筆寫本 地圖이다. 이 지도의 크기는 57 * 94cm로 1m 정도 크기의 木版本 地圖와 차이가 있다. 또한 筆寫本 地圖의 특징을 살려 각 도의 구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木版本 《海左全圖》와 달리, 점선과 더불어 채색을 더해 도의 경계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윤곽을 살펴보면, 《海左全圖(6)》과는 달리 오늘날의 中江津에서 滿浦로 이어지는 鴨綠江의 유로 부분이 木版本 《海左全圖》와 비슷하다(그림 43).



[그림 43] 木版本 《海左全圖》와 筆寫本 《海左全圖》의 북부지방⁹⁰⁾

90) 왼쪽은 木版本 《海左全圖(1)》의 모습이며, 오른쪽은 筆寫本 《海左全圖(16)》이다.

그렇지만 백두산 표현 방법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로 산을 표현하고 있는 木版本 《海左全圖》와 달리 筆寫本 《海左全圖》의 경우 회화적으로 산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백두산이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그림 44). 그러나 표현되고 있는 면적은 木版本 地圖가 크고 가로로 넓게 퍼져 있으며, 모습 또한 자세한다. 그리고 大池로부터 흘러나가는 하천의 모습 또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의 크기와 모습이 다르므로 그곳에서 출발하는 하천의 방향이 서로 다르고, 하천의 휘는 모양 또한 서로 차이가 있다(그림 44).



[그림 44] 木版本 《海左全圖》와 筆寫本 《海左全圖》의 백두산 부분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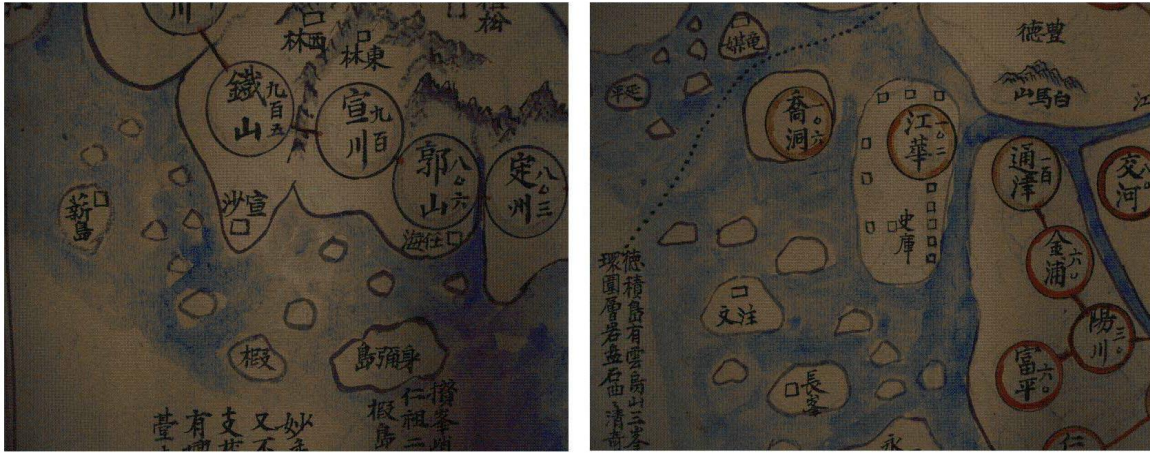
91) 위의 지도는 木版本 《海左全圖》인 《海左全圖(9)》이며, 아래 지도는 필사본 《海左全圖(16)》이다.

지도상의 표현을 보면, 木版本 地圖에서 鎭堡로 표시되었던 長津이 다시 군현명을 나타내는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厚州가 아닌 厚昌으로 나타나 있다. 厚昌은 1869년에 후주와 자성을 합해 신설한 지명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 지도가 木版本 地圖보다 뒤에 그려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厚昌의 신설에 대해서는 이 지도의 註記 부분에도 적혀 있다(그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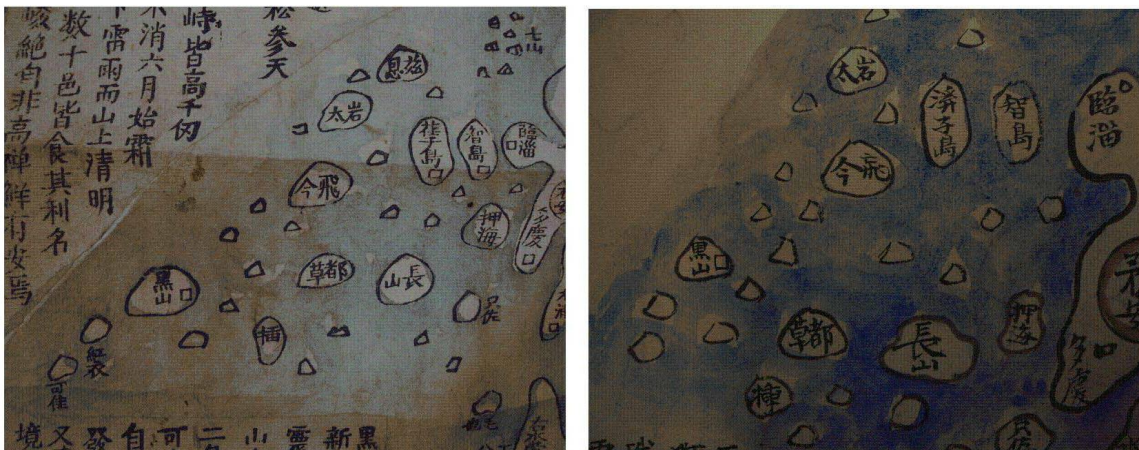
[그림 45] 筆寫本 《海左全圖(16)》에 나타난 長津과 厚昌

그리고 이 지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은 木版本 《海左全圖》의 영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평안도 宣川을 보면, 木版本 지도에서는 ‘九00’인데 반해, 《海左全圖(16)》에서는 ‘九百’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 江華나 喬桐의 경우에는 木版本 《海左全圖》와 같이 江華가 ‘一0二’로, 喬桐이 ‘一0六’으로 되다(그림 46).



[그림 46] 筆寫本 《海左全圖(16)》에 나타난 ‘距京里數’의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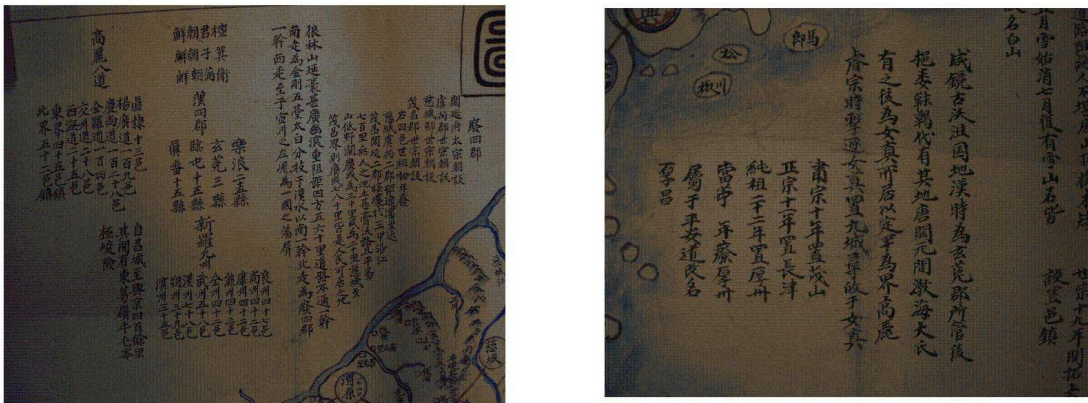
《海左全圖(16)》에 반영된 섬의 표현 역시 木版本 《海左全圖》와 비교하여 그 크기와 모양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위치 등은 (나) 유형의 《海左全圖》와 상당히 유사하다(그림 47).



[그림 47] 木版本 《海左全圖(3)》과 《海左全圖(16)》의 전라도 부분

[그림 47]에서와 같이 岩太島를 중심으로 위에 한 개의 섬이,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에 각각 섬 하나가 표시되어 있으며, 黑山島 왼쪽 아래에도 똑같이 두개의 섬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두 섬의 경우, 木版本 지도에는 섬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만, 筆寫本 《海左全圖(16)》에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飛今島의 ‘今’자 밑으로 나란히 4개의 섬이 있는 모습은 木版本 地圖와 筆寫本 《海左全圖(16)》가 같지만, 《海左全圖(16)》에 그려진 네 개의 섬이 飛今島와 비교해 보았을 때 木版本 地圖보다 크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지도상 부분 이외에도 《海左全圖(16)》의 경우, 木版本 《海左全圖》에 있는 註記 내용이 비록 위치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적혀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長津과 厚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 있다. 이를 통해서도 이 필사본 《海左全圖(16)》은 木版本 《海左全圖》를 바탕으로 모사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48] 筆寫本《海左全圖(16)》의 註記 92)

이처럼 지도상에 나타난 모습이나 주기의 모습을 보아 筆寫本 《海左全圖(16)》가 木版本 《海左全圖》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92) 왼쪽 사진은 《海左全圖(16)》 왼쪽 상단에 적혀 있는 것으로 木版本 《海左全圖》와 같은 내용이며, 오른쪽 사진은 함경도 長津과 厚昌에 관한 내용으로 木版本 《海左全圖》 주기에 추가된 부분이다.

VII. 결 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地圖는 필요에 의해 만든 것으로, 지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다. 그렇기에 地圖에는 그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古地圖 역시 옛사람들의 공간적 지식과 생활 모습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역사적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선시대에 地圖는 정치적 목적과 학문의 발달로 크게 발전했고, 인쇄술의 발전은 또한 다량 생산이 가능한 木版本 地圖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제한적이었던 地圖의 사용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木版本 地圖는 ‘東覽圖’와 같은 地圖冊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木版本 地圖의 결정체인 金正浩의 《大東輿地圖》로 발전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연구는 木版本 地圖라는 초점보다는 金正浩와 《大東輿地圖》에 있었다. 그러나 지도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22첩을 연결했을 때 전체 크기가 무려 6.7m인 《大東輿地圖》를 일반에게까지 보급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즉, 지도의 대중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大東輿地圖》와 같은 대형 목판본 지도보다는 《海左全圖》의 크기와 비슷한 중소형 크기의 地圖 제작의 성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세로 길이가 1m 정도의 《海左全圖》는 한 장으로 된 木版本 地圖로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는 정상기 계열의 지도와 유사하며, 여러 종류의 지도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지도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도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산·하천·섬 등의 자연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京과 군현에 관한

행정 정보·군사 정보·驛·거리를 표시한 교통 정보·사찰 등의 문화 정보인 인문적인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海左全圖》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도 여백에 있는 註記이다. 주기에는 檀君朝鮮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의 변천과 鬱陵島·對馬島·濟州道 등 섬에 관한 역사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산과 관동팔경 등의 명승지가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규장각, 성신여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경희대 행정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17장의 지도를 연구·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 17장의 《海左全圖》 중 2장의 筆寫本 地圖를 제외한 15장의 《海左全圖》 판본을 비교해 본 결과, 木版本 《海左全圖》의 경우 지도의 크기나 형태, 내용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3종류의 판본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분류는 판이 나뉜 위치, 註記에서의 誤字와 글자모양, 그리고 지도상에서의 하천과 산, 8도 경계선의 표현·정보의 추가·섬의 추가 및 삭제·誤字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세 종류의 판 유형을 각각 (가), (나), (다)로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형의 경우 지도 전체가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판이 평안도 위원 바로 윗부분까지이며, 두 번째 판은 평안도 용강, 그리고 세 번째 판은 충청도 비인 부근까지이다. 주기 부분에 ‘大清’이 ‘大漬’로 잘못 판각되어있고, 다른 두 유형에는 모두 표시되어 있는 薪島鎭의 진보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점, 淸涼山이 淸京山으로 판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일 먼저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판각된 판이기 때문에 정보상의 오류가 보이기는 하지만 판각의 수준이나 섬세함 등은 나머지 두 유형보다 뛰어나다.

(나) 유형의 《海左全圖》도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 유형과는 달리 첫 번째 판이 평안도 초산에서, 두 번째 판이 황해도 풍천, 그리고 세 번째 판이 전라도 김제 부근에서 나뉜다. 그리고 (가) 유형에서 보였던 오류들이 수정되었고, (가) 유형에 없었던 섬이 반영되어 표시되어 있다. 또한 (나) 유형의 경우, 같은 종류의 판으로 생각되는 지도에서도 섬이 추가되는 등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수정이 용이한 木版本 地圖의 장점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 유형은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5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 유형의 세 번째 판이 (다) 유형에서는 경기도 남양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나뉘지고 있다. 그리고 (다) 유형의 경우 지도상에 나타난 표현이나 특징이 (나) 유형과 유사하지만, 對馬島까지의 거리 표현은 (가) 유형과 유사하다. 즉, (가) 유형과 (나) 유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크기 1m 정도의 목판본 지도의 판이 여러 유형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木版本 地圖는 筆寫本 地圖와는 달리 대량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판이 여러 종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지도가 생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海左全圖》는 많은 지리적 정보는 물론이고, 주기를 통해 한 장의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지도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을 눈앞에 그려지듯이 설명해주고 있는 지도이다. 즉, 《海左全圖》는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는 크기의 지도이며, 다량 제작이 가능하고, 또한 많은 정보가 수록된 지도로 아마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한 대중적인 지도였을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지도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같은 이름의 筆寫本 地圖가 제작되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木版本 《海左全圖》 보다 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筆寫本 《海左全圖》는 지도의 내용과 주기 부분으로 보아 분명 木版本 《海左全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 대중적인 地圖를 다시 筆寫本으로 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海左全圖》가 지도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국역 CD

《輿圖備志》

《輿地圖書》

국립지리원·대한지리학회, 2000, 한국의 지도-과거·현재·미래-.

방동인, 2001, 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배우성, 1996, 18世紀 官撰地圖 製作과 地理 認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

오상학,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상학, 2001, 朝鮮時代의 世界地圖와 世界 認識,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이 찬, 1977,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 이 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 이홍직 편, 2003, 증보 새 국사사전, 교학사.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1991,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 한국역사연구회 편, 2003,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 한영우, 2001,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한영우 외, 효형출판.

2. 論文

- 양보경, 1991, “목판본 《東國地圖》의 편찬 시기와 의의”, 규장각 14, pp.1~28 .
- 양보경, 1992, “18世紀 備邊司地圖의 고찰 - 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지도집을 중심으로-”, 奎章閣 15, pp.93~123.
- 양보경, 1992, “申景浚의 『山水考』와 『山經表』 -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5·6월호, pp.135~145.
- 양보경, 1995, “郡縣地圖의 發達과 《海東地圖》”, 海東地圖(解說, 索引集) 서울대학교 奎章閣, pp.61~74.
- 양보경, 1997, “당진 古地圖의 역사적 이해”,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pp.105~112.
- 양보경, 1998,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민강좌 23집, pp.45~69.
- 양보경, 1998, “韓國의 옛 地圖”, 한국의 옛지도(자료편), 영남대학교 박물관 pp.114~127.
- 양보경, 2002, “한국 지리학 : 발달과 전망”,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pp. 17~40.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pp.26~100.

이 찬, 1968,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p.681~734.

이 찬, 1977, “韓國 古地圖의 發達”,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pp.185~217.

이 찬, 1991,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pp.87~119.

이찬·양보경 著, 1995, “朝鮮時代 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연구소, pp.122~136.

이 찬, 2001, “韓國 古地圖”,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pp.316~375.

ABSTRACT

Research on Classification of «Haezwjeondo», One of the General Maps of Korea Made by Wooden Plates

Yang, Yun Jun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map can be defined as a downscaled descriptive picture of a geographical space, and this short definition includes many meanings. In other words, maps not only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people but also have various purposes according to distinctive features. Also maps can be said to reflect a specific period of time. In this sense, old maps can also be considered to reflect the people's topographical knowledge and lives at any particular time.

In considering how maps can be used to represent how and where people live, it is fair to say that the history of cartography began from a picture or a vestige of ancient people's lives. However, for the most part, only records of old maps exist today. And any remaining old maps, that we

currently have, mostly from the Joseon Perio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xylographic printing, mass production of maps became possible. This is significantly meaningful because it popularized the use of the map.

Xylographic map printing beg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atlases such as 《Dongnamdo》 was popular, and it developed into Kim Jeongho's 《Daedongyeojido》, which is the concrete example of the xylographic map printing.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the xylographic maps which made maps available to the general people. This thesis focuses on 《Haezwjeondo》, which is a single-sheet woodblock print map. First, the overall format and geographical features of 《Haezwjeondo》 are inspected. Second, this thesis looks at the different types of woodblock print map of 《Haezwjeondo》, and classifies and compares 《Haezwjeondo》 left in Korea.

As a result, the one meter length of wooden plates of 《Haezwjeondo》 are thought to be made between 1857 and 1859. The overall style is similar to Jeong Sanggi-style maps. It includes more information than other maps that are similar in size. In 《Haezwjeondo》, there is not only detailed geographical information such as mountains, rivers and islands, but also social information which includes the capit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stations for traffic, temples and military information. These pieces of information are symbolized so that they are easily recognizable. One of the outstanding features of 《Haezwjeondo》 is explanatory notes(註記)

contained other spaces of the map. explanatory notes contains such information about the historical administrative districts, historical data of Uleongdo, Daemado and Jejudo island, as well as famous mountains and beautiful places including 'Gwandongpalgyeong'.

Comparing fifteen woodboock print maps of «Haezwjeondo» led to a finding that they are divided into completely different three types even when the size, type and content of them are similar. This result came from a comparison of certain features found on the maps. Firstly, there was a difference in features on the plates such as location and area division and incorrect letters and letter shapes. Secondly, features on the map such as rivers and mountains, additional information, and an addition or deletion of islands were inconsistent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maps. And while comparing features of the maps, it was found that a mistake was made on one type among the three with an engraving of the letter, '大漬' instead of '大清' in the section of explanatory notes. And these plates were the ones made first among the other threes. Also other differences were found on Woodblock print maps, for example, adding or deleting islands. It is believed that these changes were possible since the wooden plates were easy to engrave. Therefore it seems like those kinds of changes were made when it seemed necessary.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for the fact that there are several plates for a one-meter woodblock print map. woodblock print maps could be

mass-produced because they had a number of plates, which became a big advantage for xylographic maps. This advantage is especially worthwhile for «Hazwjeondo» since it contained not only a lot of geographic information but also past and current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place, as well as sites of scenic beauty around the country. Because «Hazwjeondo» were small enough to carry around, and it was possible to mass-produce them with a large amount of detailed information, they seemed to be used widely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It shows intentional importance concerning the produ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Hazwjeondo» being both accurate and popular.